

29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5937.66 (-74.78)	753.23 (-18.05)		
↓ 금리 (한국은행)	↓ 환율 (한·달러)		
3.766 (-0.033)	1336.8 (-0.9)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서울 5km 이내 그린벨트 6곳 풀어 7만6700가구 공급

국토부, 8·13 후속조치
“실수요자 선호 우수 입지
2030년 내 착공이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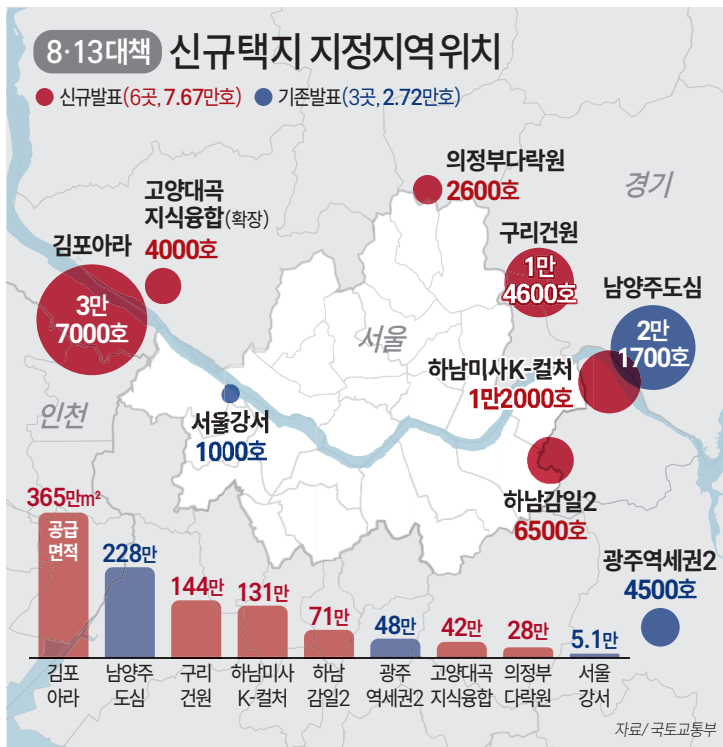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6곳에 7만67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8.13 주택신속공급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앞서 8·13대책을 통해 총 10만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등 2만7200가구 규모의 입지를 공개했다.

이번 후보지는 김포아라(3만7000가구, 365만㎡), 구리건원(1만4600가구, 144만㎡), 하남미사 K-컬처(1만2000가구, 131만㎡), 하남감일2(6500가구, 71만㎡), 의정부다락원(2600가구, 28만㎡),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4000가구, 42만㎡) 등 6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km 이



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좋다. 또 이미 훼손이 진행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

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대한 착공모형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아라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 입지다. 인근에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고, 김포한강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위치해 지역간 이동

이 편리하다.

구리건원은 장기간 보류된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대신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가깝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하남미사 K-컬처는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있고, 주변에 3호선과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남감일2는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기존 감일지구와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한다.

의정부다락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 가깝다.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은 GTX-A 등 5개 노선이 지나는 대곡역 일대다.

정부는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형’을 신규 택지 6곳에 적용한다. 지구지정 단계부터 절차를 앞당겨 2030년 내 착공한다는 목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글로벌 에너지경쟁 우위 확보 해법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충, 발전원 다변화 등이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부터 차세대 에너지 기술 확보, 공급망 고도화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찾고,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과제를 진단하고 전후방 산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불가 K-에너지: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을 개최합니다. 정부와 산업계, 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인사이트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행사명 :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주 제 :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일 시 : 2026년 11월 10일(화) 14:00~17:00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주 최 :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
◆후 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metro

분기영업익 100조 시대 열어… 전년비 783% ↑

삼성전자, 3분기 107조 기록
반도체 사업서만 106조 벌어
매출·영업익 4분기 연속 최대
DX 매출 52조, 8000억 손실
올해 주주환원 규모 최대 110조

삼성전자가반도체 사업에서만 영업이익 106조5000억원을 기록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분기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3분기 현금배당 30조원을 포함한 올해 전체 주주환원 규모는 최대 110조원에 이른다. 추가 환원 규모는 최대 75조원이다.

<관련기사 3면>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9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늘었다. 영업이익도 107조4405억원으로 783% 증가했다. 순이익은 7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4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뉴스시

실적 개선은 반도체 사업이 이끌었다.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147조1000억원, 영업이익 10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메모리 매출은 전분기보다 16% 증가한 140조7000억원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4 판매 확대와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가 실적을 뒷받침했다.

삼성전자 DS부문의 영업이

익만으로도 SK하이닉스의 3분기 전사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약 23조원 웃돌았다. 엔비디아와 TSMC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최근 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100조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메모리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AI 서버 중심의 수요 증가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7년에는 올해보다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52조1000억원에도 영업손실 8000억원을 냈다. 모바일경험(MX) 사업은 갤럭시 Z 폴드8 등 신제품 출시로 매출이 전분기와 전년 동기보다 늘었지만, 원가 부담으로 전년보다 이익이 감소했다.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 사업도 원자재와 물류비 부담 등으로 영업

손실 2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삼성디스플레이(SDC)는 중소형 신제품 출시와 원가 절감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하만도 전장·오디오 제품 판매를 이어간 가운데 미국 관세 환급 등 일회성 요인이 반영돼 영업이익 6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별 실적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도 공개했다. 3분기 현금배당은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주당 4601원이었다. 올해 전체 주주환원 규모는 9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제시했다. 이미 집행하거나 확정된 35조원을 제외한 55조원에서 75조원은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전여재원의 최종 규모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2027년 1월 이사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미래에셋증권, 日산코증권 인수

476억 규모 지분 100% 취득
내년 3월까지 인수 마무리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등록

미래에셋증권이 일본 증권회사오카산증권그룹산하산코증권을 인수한다. 일본 현지 증권업 라이선스를 확보해 주식·채권 거래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에셋증권은 29일 미국 종속회사인 ‘미래에셋증권홀딩스USA(US Holdings)’를 통한 산코증권 지분 100% 취득과 이를 위한 출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약 476억원이다. 인수 절차는 2027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코증권은 도쿄 주오구에 본사를 둔 회사다. 오카산이 2022년 10월 주식교환으로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자회사로 만들었다. 지난 5월 개인 고객을 같은 그룹의 증권재팬으로 넘긴 뒤 자기매매에 집중해 왔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고객 돈이 아닌 자기 돈으로 주식·채권을 사고팔아야 이익을 내는 사업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개인 고객 사업이 포함된 작년 4월~올해 3월 회계연도 순이익은 4800만엔이다. 순자산은 46억엔 정도로, 인수 금액과 비슷하다.

미래에셋이 노린 건 면허다. 산코증권을 사면 일본의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등록을 넘겨받는다. 주식·채권을 사고팔고 기업이 새로 찍는 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일본 증권업 면허다. 새로 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미래에셋은 산코증권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고 조직을 키울 계획이다.

니혼게이지자신문에 따르면 상품 판매는 오카산과 손잡는다. 미래에셋 계열 ETF(상장지수펀드) 운용사 글로벌X의 상품을 오카산 고객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 /사진 뉴시스
▲민주 “국힘, 선관위 특검 ‘투표지 검증’ 결과 승복 약속하라”

▲오세훈 ”조희대 탄핵 추진은 만행…국민 두고보지 않을 것“
▲주진우,李大통령 부부 ‘황제 골프’ 의혹 경찰 고발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서울시, ‘재정난’ 서울 지하철 빛 상환에 1천억 추가 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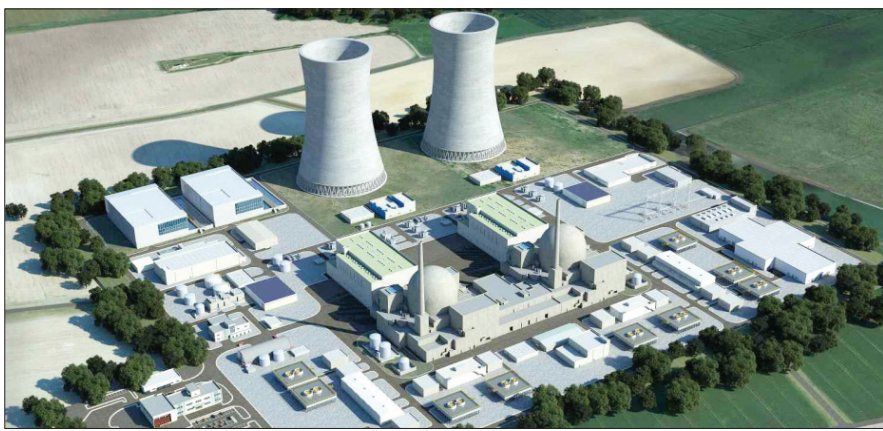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 한수원, 신규 시공사 찾는다

대우건설·두산에너지 컨소 협상 종료
내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 선정 계획
업무공백 최소화... 공사일정 준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대우건설·두산에너지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한수원은 29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대우건설·두산에너지 컨소시엄과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을 공식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협상 종료는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양측 이견에 따른 것”이라며 “한수원과 시공사는 그동안 실무협상, 이견조정위원회, 경영진 협상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체코 신규원전 조감도.

/한수원

◆ 15개월 간 78회 협상에도 최종 결렬

한수원과 시공사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체코 사업 수주를 위해 사전 선정된 이후 팀코리아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4년 4분기 최종 입찰서 제출 과정에서 계약 금액과 조건에 대한 이견이 불거졌고, 지난해 6월 발주사(EDU II)와 주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총액확정 계약 방식을 두고도 맞섰다.

시공사 측은 국제 건설계약에서 특정 계약 방식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총액확정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기로 양측이 합의했고, 해당 방식 역시 최초 입찰 단계에서 시공사가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공계약금액 및 단가 감액, 추가 공사

등을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시공사 측은 체코가 아랍에미리트(UAE)보다 세금 부담이 크고 유럽 인력을 채용해야 해 간접비 비중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의 단가 인화와 추가 역무 요구를 수용하면 2조76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단가·간접비를 삭감해 계약금액인 7조7000억원을 맞출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방적 감액이 아닌 최초 입찰시 양사의 합의사항 및 외부 전문가 검증 결과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정 요구라는 입장이다.

양측은 실무협상(78회), 이견조정위원회(11회)에 이어 경영진 협의까지 거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 및 발주사 측이 요구하는 2028년 착공 지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기한을 10월 말로 정하고 최종 종결을 결정했다.

◆ 신규시공사 경쟁입찰 추진

한수원은 이에 따라 전체 사업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시행사 선정 입찰에 나서 내년 7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와 설계 및 인허가 등 필수 업무를 병행하고 주요 공정별 영향과 지연 요인을 점검해 촉진 방안을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한수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원칙을 전했다. 기존 시공사로 선정됐던 대우건설과 두산에너지 컨소시엄에도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신규 시공사 선정 전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부대설비 설계 등 필수 역무는 별도 발주하고, 공정관리 문서 작성 및 임시숙소 대책 등은 한수원이 직접 수행하는 등 대체 계획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2028년 1월 부지정지 준비 공사 및 2029년 11월 본공사 착공 일정을 차질 없이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美 기준금리 3.75~4.00% 동결 한은 “금융·외환시장 경계 유지”

연준 경기평가 ‘건조한-강한’ 조정
시장선 여전히 12월 인상전망 우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추가 인상에 대한 확답을 아꼈지만 시장에서는 12월 인상 전망이 여전히 우세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향후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과 국내에 누적된 금리 인상 부담을 함께 점검하며 경계를 유지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유지했다. 표결은 10대 2였다. 리사 쿡 이사과 베스 해백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0.25%포인트(p) 인상을 주장해 반대표를 던졌다. 경기 평가는 ‘건조한’에서 ‘강한’ 확정제로 높였고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 인상 효과 더 보겠다는 연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9월 인상 이후 일부 기업·가계의 금융·신용여건이 조여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화정책적 조치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면서도 “아직 확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물가가 6년 가까이 2% 목표를 웃돌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음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FOMC 회의에서 내려질 결정을 미리 예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추가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은 인상 의지가 예상만큼 뚜렷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받아들였다. 한은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전후로 금리선물에 반영된 12월 0.25%p 인상 기대는 90.7%에서 84.8%로 낮아졌다. 기대는 소폭 후퇴했지만 추가 인상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수준이다.

채권시장의 반응은 만기별로 달랐다. 29일 오전 한은 배포자료 기준 미 국제 2년물 금리는 4bp(1bp=0.01%포인트) 내

린 4.70%, 10년물은 2bp 오른 5.02%였다. 주가는 상승하고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장기금리 상승에 연준의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됐다는 시장 평가를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강한 경기 평가에도 회계에서 뚜렷한 추가 정보나 정책방향 안내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가 인상을 내다보는 기대는 낮아졌지만, 물가를 잡을 대응이 충분하지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는 해석이다.

◆ 대외정책 변수와 누적된 금리 부담 함께 점검

정부는 이날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의 향후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국내 금리 상승이 취약차주에게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 흐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상황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기존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차주·금융업권 영향을 살펴 추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시장에 대해서는 10월 발행물량 축소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가 하락해 다소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의 전이 가능성을 살펴 11월 발행물량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긴급비어백(국고채 조기상환) 등 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은도 권민수 부총재 주재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중동 긴장과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AI 투자 불확실성 등을 살폈다. 권 부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BOJ)의 정책 결정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변화도 거론하며 “앞으로도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난임 여성

“난임은 제아이가 아닐 줄 알았어요”

AGE: 32
BLOOD TYPE: A+

여성암 경험자

“진짜 시작은 퇴원 후, 정기검진이더라고요”

AGE: 37
BLOOD TYPE: B+

오늘 여성의 웰니스에 꼭 맞는 보험이 되기 위해

여성의 현실 가까이

갱년기 여성

“이제는 산부인과보다 정형외과를 더 자주 가요”

AGE: 54
BLOOD TYPE: A+

AGE: 33
BLOOD TYPE: O+

AGE: 42
BLOOD TYPE: AB+

AGE: 29
BLOOD TYPE: AB+

AGE: 38
BLOOD TYPE: O+

임신과 출산, 그 안의 고민을 병명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갱년기 그 이후의 삶까지

여성을 위한 현실 밀착형 보험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보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https://www.hwgenerals.com>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86213호(2026.08.06~2027.08.05)

“시장 즉시 안정보다 불안 완화… 실제 착공·입주에 성패”

신규택지 10만가구 공급지도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로 속도
사업절차 68개월 → 37개월로 단축
토지 보상, 교통 개선 시차 줄여야

정부가 8·13 대책에서 예고한 수도권 신규택지 10만가구의 공급지도가 완성됐다. 1차 발표 후보지에 추가된 택지까지 합하면 총 10만3900가구로 당초 계획을 웃도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에서 서울은 빠졌다. 다만 인접 지역에 주택과 일자리, 교통망을 갖춰 서울에 물린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계획한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행정절차를 앞당기고 주민 반발을 조율하는 한편, 교통망도 제때 구축해야 집값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는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후보지를 공개했다. 착공은 2030년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실제 규모는 지구 지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날 브리핑



국도교통부가 29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신규택지 후보지 7.67만호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후보지 중 한 곳인 경기 하남미사 K-컬처지구 모습. /뉴시스

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해당 시점까지 착공할 물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30년 첫 삽을 뜨는 데 성공한다면 2033년 첫 입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일 수단으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내놴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사업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기존 행정절차로 최소 68개월 이상 걸리

던 기간을 최단 37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신규택지가 최단기 착공모델의 실효성을 확인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봤다. 여러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토지 보상을 협의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다. 기존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졌다. 실제로 공사 시작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지

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하려면 주택 공급과 교통 개선의 시차도 줄여야 한다. 김포·하남 등은 철도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서울 접근성은 철도 연장 개통 시기와 환승 여건에 달려 있다. 주택이 먼저 들어서고 교통망이 뒤따르면 주민의 출퇴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홍 장관은 김포의 교통난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소사를 통과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경기도가 준비 중이라며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 출토로 지연된 하남교산도 문화지표조사와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발표에서 서울이 빠진 배경에 대해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된 후보지부터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입법과 공론화에 시간이 필요하며 단기간에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을 서울시와 실무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내 추가 공급은 협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앞서 발표된 서울 영창동 등에서 반발이 거셌던 만큼 보상과 개발 방향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구 지정 과정에서 교통대책과 자족시설 등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의 시장 안정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당장 입주할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아닌 만큼 서울 매매·전월세 가격을 즉각 낮추기보다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를 예상했다. 또 현재의 임대차 불안에 대응하려면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임대, 비아파트 공급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랑장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발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에 달려 있다”며 “사업 단계별 일정과 교통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2030년까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곳 육성”

중기부·복지부, 육성방안 공개 협업형 기업 육성 모델 구축 계획 기업 성장자금 확보 뒷받침하고 AI 등 활용 개발 기간·비용 단축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을 선도할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를 키워낸다. 기술개발(R&D) 전담은행을 통해 3년간 총 600억원의 투자와 900억원 규모의 사업화 보증을 지원하여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은 2020년 23조 2000억원에서 2024년 31조 7000억원으로 성장했으나, 바이오 벤처 창업은 2020년 581개에서 2023년 288개로 오히려 줄어 들었다. 특히 신약개발에는 장기간 대규모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충남 천안시 종근당 천안공장에서 제1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 총리,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사장. /뉴시스

자금이 필요하나, 초기 바이오기업의 투자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부처별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기업 공동 발굴 → 성장전략 수립 → R&D·임상·사업화 패키지 지원 → 투자·보증 →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협업형 기업 육성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

망기업을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으로 선정한다. 매년 50개사씩 선정해 2030년까지 총 200개사를 육성한다. 신약 개발 20개사, 의료기기·디지털헬스 20개사, 바이오소재·생산기술 10개사 등 3대 분야에서 중기부·복지부가 공동으로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성장디딤돌을 1대1로 연계하여 기업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1단

계2년간 기술개발(R&D)·임상·사업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에는 투자·글로벌 진출 등을 3년간 추가 지원한다. 기술개발(R&D) 전담은행을 통해 3년간 총 600억원의 투자와 900억원 규모의 사업화 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자금 확보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부터 임상·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동물시험 감축 등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오가노이드·장기칩 등 동물대체시험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제약사의 기술 수요와 국내 유망기업을 매칭하는 수요 기반 국제공동 기술개발(R&D)을 통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임상 진입까지 연계한다. 또한 중기부의 사카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 C)와 복지부의 텍사스 메디컬센터(TM

C) 등 해외 거점을 연계하여 현지 기업·병원과의 협력, 투자유치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중기부와 복지부가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선정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새로운 협업형 기업육성모델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이 될만한 새로운 기술이 국가 핵심 먹거리로 꽃피울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성과 병원·임상 인프라를 중기부의 기업 성장지원 역량과 긴밀히 연계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우수한 기초연구가 사장되지 않고 신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후보 물질 단계부터 임상·인허가·품질공정(CMC)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상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metro

엔트로픽 IPO 본격화… 서학개미 ‘우회 베팅’

이달 서학개미 순매수 7조3700억
SOXL, 아이렌, 엔비디아 수요 몰려

글로벌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엔트로픽이 상장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투자자와 자산운용사들이 인공지능(AI)와 반도체 테마에 선제적으로 베팅하고 있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29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재액은 53억2414만달러(7조3700억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올해 최대였던 지난 1월의 50억299만(6조7100억원)달러를 넘어선 규모다.

엔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추진으로 AI 산업 성장 기대가 부각되는 가운데,

서학개미의 자금은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관련 상품에 집중되고 있다. 순매수 1위 종목에는 반도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인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셰어즈(SOXL)’가 이름을 올렸다. 순매수 결재액은 35억8925만 달러로, 전체 미국 주식 순매수액의 약 67%를 차지했다.

AI 데이터센터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주(10월 20일부터 26일)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권에는 아이렌(4347만달러)과 엔비디아(3783만달러)가 이름을 올렸다.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은 엔트로픽이 IPO절차를 밟고 있지만, 관련 상품 출시와 투자 기회 확보에 조심스러운 발

걸음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 영향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트로픽의 상장 효과는 각 ETF의 편입 여부와 시점, 실제 매입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 ETF에 투자한다고 해서 엔트로픽 공모주를 공모가에 배정받는 것도 아니며 ETF가 해당 종목을 편입하기 전에 엔트로픽의 주가가 먼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운용사는 발빠른 움직임이다.

하나자산운용은 27일 엔트로픽 등 AI 플랫폼 기업 편입을 염두에 둔 ‘1Q 미국 AI 테크 플랫폼 TOP10’을 상장했다. NH아문자산운용은 지난달 15일 상장한 ‘HAN ARO 미국에이전트 AI TOP2+’ ETF 광고에 오픈AI와 엔트로픽의 로고를 전면 배치하고, ‘상장 후 신속 편입 예정’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지난달 제조업 체감경기 큰 폭 개선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결과’
CBSI 104.2… 전월比 5.1p 올라

10월 제조업 체감경기가 일시적으로 작용했던 부정적 여파들이 해소되면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비제조업 심리도 반도체 투자 증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개선되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0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04.2로 전월보다 5.1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달에는 0.5p 하락했는데, 큰 폭으로 반등한 모습이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 주요 지수를

합성한 지표다. 2003~2025년 장기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삼아 이를 웃돌면 기업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제조업 CBSI는 105.6로 한 달 전보다 6.1p 급등했다. 자동차 및 기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체감경기가 개선됐다. 제조업 CBSI는 지난달 약 4달만에 100 아래로 하락했는데, 한 달여 만에 100을 넘기며 반등했다.

제품재고는 제조업 CBSI를 2.0p 끌어올렸고, 생산과 신규수주도 각각 1.1p와, 0.6p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단, 업황 지수는 0.2p 하락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더 나은 금융 더 넓은 가능성

새로운 금융의 길에 도전하고
세계로 무대를 넓혀가는 이유

고객님이 더 쉽고 편하게
폭넓은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한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손해보험

증권

인도네시아

미국

카드

베트남

은행

일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그룹**

정쟁 속 민생은 한뚝… 여야,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맞손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
노동 약자 보호 공감대 형성하고
“정기국회 내 조속한 입법”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입법 협력에 나섰다. 여야 정책위원회는 정치적 갈등과 별개로 노동 약자를 위한 안전망 마련에 뜻을 모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는 지난달 15일 여야 정책위원장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양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과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자리다.

먼저 발언을 시작한 권철승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여야 정책위가 바로 모이는 걸 보니 민생에 있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플랫폼 노동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과 입법 결실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란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원장은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첫 현안은 노동”이라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과 안전망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특정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공백의 고통은 결국 일하는 사람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현행 노동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자라고 불리지도 못하는 노동자가 870만명에 달한다”며 “국회는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정말 오래된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각 당의 많은 의원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셨다”며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접점을 찾아 늦어도 올해 안에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도 신발 끈을 고쳐 매겠다”고 다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여당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면서도 민생 입법에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정책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탄핵 추진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추진 등을 언급하며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 야당 정책위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소는 키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 정쟁이 격화된다고 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민생 정책마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며 “정책을 책임지는 여야 정책 사령탑이라면 정치적 갈등과 민생 과제는 철저히 분리해서 다루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 법안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이나 세부 사항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지켜내겠다는 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민생에서만큼은 여야가 하나 돼 플랫폼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내자”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적 대응이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입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노동 관련 입법은 방향, 속도,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 우리 국회에서는 과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굉장히 늦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며 “이번 토론이 어떤 제도적 (변화를) 뒷받침하는 데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靑 “엄중한 행위”

**안보실,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
합참, 추가 발사 대비 감시·경계 강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9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하자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발사함에 따라 안보실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우리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지난 12일에 이어 약 2주 만에 이뤄진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했다. 또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하는 데 있어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현재의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3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0여 발을 발사했다. 지난 12일 이후 17일 만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지난 23일 우리 정부가 제정한 남북 군사 회담을 거부하는 차원의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으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

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이후에 이뤄졌다.

앞서 국방부는 MDL 이남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는 등 접경 지역 일대 긴장이 고조되자 지난 23일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로 MDL 위치 상 호화환, 군 통신선 복원,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공식 회담 제의였으나 북한은 전혀 호응하지 않고 침묵을 이어 왔다.

/서예진 기자 sy@



이태원 참사 4주기… **李 대통령, 희생자 애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폭풍 SNS 올린 **李** “직접소통, 대통령 책무”

청와대 참모진 나서 진의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에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10건이 넘는 게시물을 올리며 대국민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민감한 현안에도 직접 의견을 표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 참모진도 나서서 진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이 대통령은 29일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은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라며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총 13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전날 게시물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대통령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예약 우선순위에서 다문화가정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순위를 적용받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며 우대 필요성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다만 해당 커뮤니티가 보수 성향의 ‘에펠킨리야’라는 점과 게시물에 담긴 일부 표현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농촌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후 관련 발언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부정하는 취지로 보도되자 이 대통령은 직접 SNS를 통해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같이 민감한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전통적인 민주진보 지지층 등에서 ‘차별적 인식’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에 청와대 참모진도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섰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이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다문화 가정 지원 발언은 기존 규정이 10년 전 기준임을 감안해서,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도 이날 추가 공지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서예진 기자

靑 대북 대응 놓고 興 “적절” vs 野 “미흡”

민주 “군사·외교적 조치 충분”
국힘, 북한 도발 대응 수위 질타

여야가 29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 대응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외교적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응이 미흡한 데다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 유엔군 사령부와의 공동조사, 경고사격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 논

란에 대해서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박근혜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DMZ 평화공원 조성과 회담을 제안했고, 통일부도 2000억원 규모의 공원 조성과 연간 160억원의 대북 현금 지급 계획을 세웠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엇박자로 보지 않는다. 통일부는 통일부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국방부는 국방부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무력시위로 대응하고, 통일부는 유화적인 조치를 추진하며, 대통령은 이를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역대 정부가 유사한 대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D

MZ 인근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수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도둑이 집에 들어와 주인을 협박하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와 다른 외교·안보 부처 간 입장 차이도 질타했다. 그는 “국민도 국제사회도 혼란스러워한다”며 위 실장이 부처 간 입장 조정에 나서지 않은 것인지, 조정에 나섰는데도 통일부가 따르지 않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조율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역할 확대도 우회 파병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쟁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박경수 기자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바다의 새로운 가능성을 BNK에 담았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시작된 꿈이 더 넓은 바다로 이어지도록
BNK금융그룹이 해양수도권의 두근두근한 미래와 함께합니다

2026년 해양금융추진단 신설 및 선박·해양인프라 금융 확대



부산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 해양금융추진단 신설·특화센터 운영



울산 친환경 에너지 허브·에너지산업 금융지원 확대



경남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 해양·물류 등 지역 특화산업 금융 확대

본 광고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씬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급한 돈 빌리는 생계형 대출 급증 소액신용 잔액 1.6조 사상 최대치

79개 저축은행 전년대비 22% ↑
총 대출잔액은 0.8% 증가 그쳐
소액대출 연체 721억, 2년래 최대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잔액이 1조 6000억원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급전 수요가 소액신용대출로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 총 소액신용대출액은 1조592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조3049억원) 대비 2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대출잔액은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6월 말 94조9035억원에서 올해 6월 말 95조695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전체 대출 규모가 사실상 정체된 반면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2024년 말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6월 말 1조3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12월 말 1조4000억원을 돌파하더니 올해 6월 말에는 1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

분기별로 살펴보면 소액신용대출잔액의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소액신용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 약 760억원에서 4분기 814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올해 1분기에는 496억원으로 둔화했지만, 2분기 들어 다시 808억원으로 늘었다.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은 300만원 이하의 자금을 담보 없이 빌릴 수 있는 생계형 대출이다. 주로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과 중·저신용자들이 이용한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에서 3년 사이이며 평균 금리는 15~16% 수준이다.

소액신용대출은 보통 생활비 등 긴급 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된다. 대출잔액 증가는 고금리·고물가로 취약계층이 수백만원의 생활자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반영된 신호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서는 소액신용대출 연체액도

상승하고 있다. 소액신용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6월 말 약 708억6400만원에서 9월 말 688억8900만원, 12월 말 671억7200만원으로 감소하더니 올해 3월 713억800만원, 6월 721억22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체액의 경우 지난 2024년 6월 말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다.

대출 규제 강화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소액신용대출 수요가 더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고 급전 마련 수단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자금 수요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6·27 대책 이후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묶이고 타 업권의 카드론·보험약관대출까지 조여지면서, 급전 수요가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로 이동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안채선 기자

wotis4187@metroseoul.co.kr



metro



서울 송파구 장지동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투시도.

/현대건설

“1000만원으로 송파 오피스텔 계약 하세요”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분양
현대건설, 복정역 도보권 1393실 규모

서울 송파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이 1차 계약금 정액제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 909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를 분양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는 지하 4층~지상 16층, 10개 동, 전용면적 34~119㎡로 구성된다. 복정역 도보권에 들어서며, 총 1393실 규모다. 입주는 2031년 1월 예정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지만 1차 계약금을 1000만원 정액제로 적용했고, 1차 중도금 일정도 약 1년 후인 2027년 10월 말로 확정해 대출이자 부담을 덜었다. 전용 34~36㎡ 소형 타입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다만 대출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지가 자리한 곳은 복정역 스마트시티의 핵심축인 송파·위례 더그리드다.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대지면적 약 21만9000㎡, 연면

적 약 166만㎡ 규모로 총사업비만 13조원 대에 이른다.

복합용지 3블록에는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가 들어서고, 2블록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과 자율주행, 로봇틱스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기술 연구를 담당할 HMG퓨처콤플렉스가 조성된다. 지하 1층에는 현대백화점이 위탁 운영하는 쇼핑몰도 조성될 계획이다.

도보권에 위치한 복정역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다.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남유역(8호선)을 잇는 위례선 트램이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시범 운행 중이다. 여기에 위례신사선(예정)과 위례과천선(추진)까지 더해지면 교통 여건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위례신사선이 개통되면 강남업무지구(GBD)까지 이동이 더욱 편리해진다.

다양한 특화 설계로 세대 내에는 2.42m 높이의 우물전장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으며, 냉장고, 인덕션을 기본 제공한다. 세대별 창고를 별도로 제공해 계절 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고, 단지 내 주차 공간은 세대 당 1.19대 수준으로 넉넉하게 계획됐다.

건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218(벤츠 자곡전시장 건너편)에 위치한다.

/안상미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반포124’ 투시도.

/현대건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 아트팰리스 조감도.

/롯데건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디에이치 신반포에스테라’ 현장.

/안상미 기자

갭투자·유주택자도 ‘OK’… 강남 분양대전

디에이치 반포 124

일반 1832세대, 시세차익 기대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

총 835세대 규모, 내년 2월 입주

디에이치 신반포 에스테라

내달 6일 입찰, 트리플 역세권

연말 분양시장은 강남 대전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단지부터 세금 부담이 적은 소형과 실거주가 필요없는 곳까지 선택지도 다양하다.

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연내 서울 서초구에서만 반포동 ‘디에이치 반포 124’를 비롯해 서초동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 잠원동 ‘디에이치 신반포 에스테라’ 등 3개 단지가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가장 먼저 출격하는 곳은 잠원동 65-33일원에 조성되는 디에이치 신반포에스테라다. 오는 30일 입찰 공고를 내고, 11월 6일 입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디에이치 신반포에스테라는 일반분양 물량이 28세대라 청약홈이 아닌 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지는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으로

조성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개 동, 총 160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4㎡ 28세대가 나온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함께 7호선 반포역, 3·7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반경 500m 이내에 반원초와 경원중이 위치하며, 청담고가 잠원동으로 이전 개교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뉴코아아울렛, 서울고속버스터미널, JW 메리어트호텔 등이 가깝고, 서울성모병원도 주변에 위치한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가 적용된다.

서초구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30세대에 미치지 못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측면에서는 아쉽지만 반대로 그 덕분에 다른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물론 거주요건도 없으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유주택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반포 124는 다음달 2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12월 7일 특별공급을 청약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상 최고 35층, 50개동, 총 5007세대 규모다. 9호선 구반포역과바로

앞에 위치했으며, 4호선 동작역과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모두 인접했다. 반포초와 반포중을 이변에 단지와 같이 새로 지어졌고, 서래초, 잠원초,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등이 반경 1km 이내 위치했다. 서울성모병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도 이용이 편리하다.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1832세대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대단지인 만큼 1주택자도 가능한 추첨률량도 풀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당첨될 경우 시세 차익은 20억~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퀴 세법개정안을 적용해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소형 아파트도 대거 중이다. 롯데건설은 다음달 서초동 1448-1 일원에 들어서는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2개 동, 총 835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146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5~46㎡ 소형이다.

단지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으로 공급되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청약 절차도 일반 아파트와 같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다 이미 공사를 마쳐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금융, 누적순익 5.8조… 전년대비 13% ↑

작년 연간과 비슷… 3분기 순익 1.9조
이자이익 기반 수수료이익 큰폭 증가

KB금융그룹의 올해 들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 기반이 안정적으로 받침이 된 가운데 증권 등 수수료 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29일 KB금융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5조7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3.1% 늘면서 작년 연간 순이익 5조833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3분기 순이익은 1조9075억원이다.

KB금융 재무담당 나상록 전무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KB금융은 은행·비은행 부문의 균형 잡힌 이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룹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 중심의 내실경영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수료이익이 그룹의 수익 기반 확대와 견조한 이익 성장세를 견인했다.

3분기 누적 순수수료이익은 증권 브로커리지와 은행 금융투자상품 관련 수수료가 큰 폭 확대되고, 카드, 리스 관련 수수료 성장세가 더해지며 전년 동기 대비 38.5% 급증했다. 다만 3분기 순수수료이익은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4개 분기 연속 1조원을 웃돌았다.

3분기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1.92%, 은행 NIM은 1.72%로 전분기보다 각각 2bp씩 축소됐다.

자산건전성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9월 말 기준 그룹의 고정여신(NPL)비율은 0.69%며,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80%, 16.02%다.

그룹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3분기 누적 기준 0.93%, 13.89%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 자본효율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총자산은 851조5000억원, 관리자산(AUM)을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1684조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조57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3509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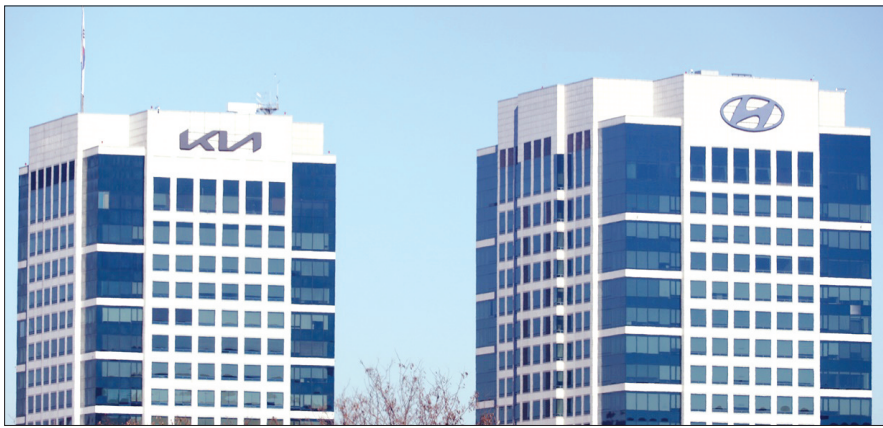
/안상미 기자

현대차, HEV 중심 실적개선… ‘생산 정상화·신차 판매’ 속도

3분기 매출 45.1조, 영업이익 2.6조
공장 파업·원자재 가격 등 부담 커져
연간 판매목표·수익성 전망치 하향

현대자동차가 올해 3분기 글로벌 판매량 감소에도 하이브리드차(HEV) 판매 확대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생산 차질과 글로벌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연간 판매 목표와 수익성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4분기 생산 정상화와 신차 효과로 실적 반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미 관세 등 대외 변수는 부담으로 남았다.

현대차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45조 1102억원, 영업이익 2조 677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5.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5.9%로 0.5%포인트 상승했다.



현대차 양재동 본사.

/메트로신문DB

3분기 실적 개선은 친환경차 판매 구조 변화와 환율 효과가 자리했다.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매출원가율이 83.8%로 1.5%포인트 높아졌지만 판매관리비율을 10.3%로 2.0%포인트 낮추며 부담을 상쇄했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실적은

부진했다. 3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량은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국내 공장 파업 등의 영향으로 92만 71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했다. 국내 판매는 13만 1468대로 27.2% 급감했고, 해외 판매도 8.0% 줄어든 78만 9242대에 그쳤다.

현대차의 3분기 글로벌 전동화 차량(xEV, 상용 포함) 판매는 HEV 판매 호조에

도 불구하고, EV 등의 판매 물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24만 5540대를 기록했다. 이 중 EV는 6만 9117대, HEV는 16만 7414대(PHEV 제외)로 집계됐다.

특히 HEV 판매는 전년도 16만 1000여 대 대비 약 6000대 증가했다. 전체 글로벌 판매에서 전동화 차량과 HEV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6.7%, 18.2%로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2.7%포인트 상승했다.

현대차는 경영환경 악화를 반영해 연간 글로벌 도매 판매 목표를 기존 415만 8300대에서 400만대로 낮췄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 전망치도 기존 6.3~7.3%에서 5.5~6.5%로 하향 조정했다. 연간 매출 성장률 목표는 1.0~2.0%를 유지했지만 자동차 부문 투자계획은 17조 8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1조 8000억원 축소했다.

현대차는 4분기 생산 정상화와 신차 판

매 확대를 통해 반등에 나선다. 지난 9월 국내 공장 생산이 정상화된 만큼 디올 뉴아반떼와 디올 뉴 투싼 등 주요 신차를 앞세워 판매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글로벌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관세 부담이 실적 개선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가이던스 조정은 본질적인 사업 경쟁력이나 수익 창출력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생산 차질 등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요인을 연간 전망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실적 전망 하향에도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하고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주당 2500원의 3분기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배당 기준일은 다음달 30일이며 지급일은 12월 30일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코치 도어·루프 에어백 등 적용… 공간 넓히고 안전 더했다

제네시스 ‘GV90 테크 데이’

플러그인 전용 eMP 플랫폼 바탕 설계
“첨단기술과 타협없는 안전으로 완성”

“GV90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첨단 기술과 타협없는 안전으로 완성된 차량입니다.”(제네시스 개발담당 하광훈 상무)

제네시스가 초대형 플러그인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90에 적용한 핵심 기술과 개발 과정을 공개했다. 개방감을 극대화한 코치 도어를 구현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힌지와 래치부터 차체 골격까지 새롭게 설계했다. 전동화 전용 플랫폼과 세계 최초 루프 에어백 등 차별화 기술을 앞세워 럭셔리 전기차의 공간 활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였다.

제네시스는 지난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GV



제네시스가 지난 28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공개한 GV90 /제네시스

90 테크 데이’를 열고 차량의 핵심 기술과 개발 과정을 공개했다. GV90에는 B필러 없이 앞뒤 도어가 독립적으로 열리는 코치 도어와 전복 사고에 대비한 루프 에어백 등 혁신 기술이 적용됐다.

GV90는 플러그인 전용 eMP(Electric Mobility Prime) 플랫폼을 처음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차체 구조와 주요 전동

화 부품 배치를 새롭게 설계해 1열부터 2열까지 바닥이 이어지는 ‘심리스 플랫 플로어’를 구현했다. 실내 공간을 넓히면서 고출력 모터와 서스펜션, 후륜 조향 장치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차체 구조물의 72%에는 알루미늄 경량 소재를 적용했으며, 접합부를 줄이는 할로우 캐스팅 공법으로 강성과 충돌 성

능을 높였다.

세계 최초로 적용된 루프 에어백은 전복 시 천장을 따라 펼쳐져 탑승객의 이탈과 머리 부상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약 1400mm 길이에 걸쳐 0.08초 만에 전개되도록 설계했으며, 실차 40대 평가와 300회 이상의 에어백 단품 시험 등을 거쳐 신뢰성을 검증했다.

현대차는 코치 도어와 차체 구조, 전용 플랫폼, 안전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공간과 디자인, 안전성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제네시스시험1실 정성기 실장은 “전 세계 다양한 도로와 시험장에서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성능을 빈틈없이 다듬었다”며 “차를 직접 운전해 보면 플러그인 초대형 SUV임에도 차체 거동이 매우 플랫폼하고 움직임이 날렵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엔솔, ‘BIC 2026’ 개최

12월 6일까지 공모… 미래 기술 발굴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산학 협력을 통해 미래 배터리 기술 발굴에 나선다. 소재부터 인공지능(AI)까지 연구 분야를 넓혀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연구 공모전 ‘배터리 이노베이션 콘테스트(BIC) 2026’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BIC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LG에너지솔루션 연구진이 연구과정에 참여하고 상시 피드백을 제공해 학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공모 기간은 12월 6일까지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은 BIC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BRIDGE’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안 과제의 기술 성숙도와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원관희 기자

3분기 실적 발표

삼성중, 전년比 매출 20%·영업익 42% ↑

고부가선박 물량 확대… 수익성 개선

삼성중공업이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 물량 확대에 힘입어 3분기 수익성을 개선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해양플랜트 수주를 확대해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3분기 잠정 실적 집계 결과 매출 3조 1504억원, 영업이익 3384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42% 증가했다.

하계 휴가와 추석 연휴 등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했지만 고부가선박의 매출 반영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은 10.7%를 기록했다. 세전이익은 선물환 청산 이익 등 영업외 수익 2723억원이 반영돼 610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은 9조 3000억

원, 영업이익은 9365억원이다. 삼성중공업은 연간 매출 목표인 12조 8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주 실적도 확대됐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LNG 운반선 20척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2기 등을 포함해 총 48척, 124억달러를 수주했다. 연간 수주 목표인 139억달러의 89%에 해당한다.

연말까지 미국 델핀 FLNG 2호기와 캐나다 웨스턴 FLNG 등 대형 해양 프로젝트의 추가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LNG 공급망 다변화에 따라 아프리카와 중남미, 북미 등에서 FLNG 프로젝트 발주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은 변수로 꼽힌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삼성SDI, 매출 52% ‘썩춤’… 흑자전환 성공

매출 4조 6856억, 영업이익 4078억

삼성SDI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배터리 판매 확대에 힘입어 3분기 흑자 전환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배터리백업유닛(BBU)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추가 수주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SDI는 올해 3분기 매출 4조 6856억원, 영업이익 4078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6%, 전 분기 대비 20.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5913억원 손실)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전 분기(2038억원)보다도 두 배 수준으로 늘면서 2023년 3분기 이후 12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3422억원으로 집계됐다.

배터리 부문은 매출 4조 4099억원, 영업이익 361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5.3%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ESS·BBU와 전동공구·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판매 확대가 실적을 이끌었다.

전자재료 부문은 반도체 패터닝 소재와 폴더블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필름 소재 판매 증가로 매출 2757억원, 영업이익 45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18.9%, 18.3% 증가했다.

한편 삼성SDI는 4분기에도 ESS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미국 내 생산라인의 LFP 전환을 가속화한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는 헝가리 생산 거점의 양산라인과 공급망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하이니켈·LFP·미드니켈 등 다양한 제품군을 앞세워 신규 수주도 확보할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가온전선

美 빅테크 케이블 공급

가온전선이 미국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

가온전선은 미국 생산법인 LSCUS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한 곳에 총 1200억 원 규모의 배전(MV)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공급도 협의 중이다.

이번 공급은 국내 기업이 단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공급하는 배전케이블 중 최대 규모다. 미국 내 복수의 AI 데이터센터(AIDC) 프로젝트에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가온전선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미국 현지 생산 경쟁력을 기반으로 신규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를 확보하고 배전케이블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성과”라며 “생산능력 확대와 고객 기반 강화를 통해 북미 AIDC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삼성·LG, 아이폰 고객 잡아라… AI홈 생태계 확장 경쟁

삼성, 아이폰용 스마트싱스 고도화
기기 제어 속도·타사 호환성 강화

LG, 애플과 IoT 기기 7종 공동 개발
가전 넘어 보안·환경관리 영역 확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애플 아이폰 이용자까지 고객 기반을 넓히며 인공지능(AI) 홈 플랫폼 경쟁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의 기기 연결과 제어 기능을 강화하고, LG전자는 애플과 공동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앞세워 AI홈 생태계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의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달 말 아이폰용 스마트싱스 앱의 홈 화면을 개편한 데 이어 이달에는 기기 제어 기능과 외부 제품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29일 아이폰용 스마트싱스 앱의 홈 화면을 개편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동화 기능과 최근 실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했다. 해당 업데이트는 안드로이드 버전보다 먼저 배포됐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스마트싱스 홈 화면 상단에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제어 기능을 보여주는 ‘스마트싱스 나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자주 사용하는 자동



모델이 AI홈 플랫폼 ‘씽큐’, AI홈 허브 ‘씽큐 온’, 실행형 AI 에이전트 ‘씽큐 클로’를 활용한 AI홈 솔루션을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화 기능과 기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 화면 구성도 변경했다.

기기 제어 방식도 개선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싱스 허브가 동일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으면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허브와 직접 통신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자체 시험 결과 기존 클라우드 기반 제어 방식보다 응답 속도가 약 30% 개선됐다. 해당 기능은 스마트싱스 앱을 설치한 안드로이드와 iOS 기기에서 모두 지원된다.

삼성전자는 외부 제조사 제품과의 호환성도 확대하고 있다. 이달 업데이트에서는 스마트홈 연결 표준인 매터(Matter) 1.6을 지원하고 에너지 계량기, 특수형 문·게이

트 카페 장치, 관개 장치, 토양 센서 등 새로운 기기 유형을 추가했다. 지난 4월에는 아케아의 스마트홈 신제품 25종과 스마트싱스의 연동을 발표했다. 스마트 전구와 플러그, 온습도·공기질 센서 등을 아케아 전용 허브 없이 스마트싱스 허브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폰 이용자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싱스를 설치해 지원되는 삼성 가전과 타사 IoT 기기를 연결하고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 다만 기기 종류와 운영체제에 따라 지원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LG전자는 애플과의 공동 제품 개발을 통해 AI홈 기기와 서비스의 연결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애플과 공동 개발한 IoT 기기 7종을 공개했다. 신제품은 연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에 우선 출시될 예정이다.

공개된 제품은 실내 카메라와 실외 카메라 2종, 도어벨, 도어락, 온도 조절기, 온도 센서 등이다. LG전자는 제품 구상 단계부터 애플과 협력해 가전 및 주거 공간 관련 기술에 애플의 플랫폼과 사용자 경험을 접목했다. 신제품 7종은 LG전자의 AI홈 플랫폼 ‘LG 씽큐’와 애플 생태계에 모두 연동된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품을 연결하고 외부에서도 기기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품별 AI 기능도 적용했다. 실외 카메라와 도어벨은 사람과 동물, 차량, 택배 등을 구분해 알람을 제공한다. 온도 조절기는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애플 기기와 연동해 사용자 위치와 날씨 등을 분석하고 냉난방을 조절한다.

LG전자는 이번 신제품을 통해 기존 가전 중심의 AI홈 서비스를 보안과 출입 관리, 실내 환경 제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홈 허브 ‘씽큐 온’과 씽큐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IoT 기기와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SK이노베이션

정유·유티유 수익성 개선
3분기 영업이익 3.7조 ‘최대’

SK이노베이션이 정유·유티유 사업 호조로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 글로벌 공급 차질에 따른 수출마진 강세가 실적에 아른 가운데 4분기에도 석유제품 공급 감소와 동절기 수요 증가로 정유 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3분기 매출 28조 7738억원, 영업이익 3조 7043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8조 1819억원, 영업이익은 3조 1186억원 증가했다.

글로벌 공급 차질에 수출마진 강세
4분기도 석유제품 수급 개선 기대

사업별로는 정유 사업을 담당하는 SK에너지가 매출 15조 9276억원, 영업이익 1조 2058억원을 거뒀다. 중동 정유설비의 가동을 저하와 러시아의 경유 수출 제한으로 공급이 줄고 여름철 수송용 연료 수요가 늘면서 수출 수익성이 개선됐다.

SK엔부르는 유티유 공급 차질로 제품과 원료 간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출 2조 3671억원, 영업이익 1조 906억원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3887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3분기 이익만으로 종전 연간 최대치인 2022년 영업이익(1조 712억원)을 넘어섰다.

SK이노베이션 E&S는 계절적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 상승과 발전소 가동을 개선으로 매출 3조 1237억원, 영업이익 7744억원을 거뒀다.

/원관희 기자 wkh@

제조업 AI 전환에 5조 투입… 2030년까지 6000곳 육성

중기부, 디지털 AI 확산 전략 발표
디지털 전환 기업 3만개사 육성 추진
제조업 AI 도입률 1% → 10% 확대
전문기업 500곳·2조원 펀드 조성

정부가 2030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해 디지털 전환(DX) 기업 3만개사, AI 도입기업 6000개사를 육성한다.

2030년까지 중소기업의 DX를 30%에서 50%로, AI 도입률을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충남 천안 중근당 천안공장에서 한성국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제조 디지털 AI 확산 전략’을 공개하고

디지털 AI 선도국가 도약’을 선언했다.

중기부는 2030년까지 스마트제조혁신에 5조원이 넘는 국가 자원을 투입해 ‘3X 전략’을 추진한다. 3X 전략은 DX로 확보한 데이터를 AI 전환(AX)과 로봇 전환(RX)으로 연계 및 융합을 뼈대로 한다.

전략은 ▲도입기업의 AX ▲기술공급기업 육성 ▲제조데이터 선순환 ▲지역·인력 기반 확충 등 4대 전략과 12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중소 제조 현장의 AX 가속화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DX·AX를 뒷받침한다.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등의 신성장 분야와 지역 유망기업

의 AI 혁신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장비·공정·공정을 포괄하는 디지털 AI 통합 실증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두의 AI 공장장’, 산업통상부의 암묵지 기반 AI 모델 등을 중소 제조업 현장에 맞게 적용해 국가적 AI 투자의 온기가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되게 한다. 제조 로봇 보급과 연계한 휴먼노이드 개발과 대·중소기업의 상생형 AX선도모델 정착도 돕는다.

공급기업을 위한 스마트제조 전략기술 로드맵도 수립한다.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기반으로 데이터·AI·로봇 융합에 필요한 기

술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로드맵과 제조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도 뒷받침한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우수 기술공급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혜택과 기술개발·실증 및 해외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30년까지 중기부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중소 제조업의 AX 전환을 이끌 전문기업 500개사를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100개사를 지정한다.

중기부는 AI 개발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임차 및 서비스 공급용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AI 기술 보유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강원 창업기업, 수경재배 유기농 인증 요구

중기 옴부즈만·중진공 현장간담회
인증 확대·팻푸드 표시 기준 등 건의

강원지역 창업기업들이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수경재배 농산물 유기농 인증 허용, 팻푸드 광고·표시 가능 범위 안내 등에 대해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29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강원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강원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이상훈 중진공 강원지역본부장, 손형욱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장, 지역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 2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한 스마트팜 창업



최승재 옴부즈만이 29일 오후 강원도 원주 강원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옴부즈만

기업은 유기농산물 인증 대상을 수경재배 농산물까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환경까지 관리하며 깨끗하게 키워도 수경재배라는 이유만으로 유기인증은 아예 받을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승호 기자

중소 경기전망 ‘먹구름’… 11월도 하락세

경기전망지수 81.5로 전월比 1.8p ↓
제조·서비스업 부진에 기대감 위축

중소기업 1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81.5로 전월대비 1.8포인트(p) 하락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7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11월 경기전망이 전월대비 1.6p 하락한 85.7,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1.9p 하락한 79.5를 각각 기록했다.

제조업에선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63.5→79.8, 16.3p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88.3→96.6, 8.3p ↑)

을 중심으로 9개 업종이 전월대비 상승했다.

반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95.0→84.3, 10.7p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89.1→79.4, 9.7p ↓) 등 14개 업종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선 건설업(69.8→69.3)이 전월대비 0.5p 하락, 서비스업(83.7→81.6)은 전월대비 2.1p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10월 중소기업 경영성애로요인은 ‘매출(제품판매) 부진’(51.5%)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 ▲원자재(원재료) 가격상승(37.3%) ▲업체간 경쟁심화(30.3%) ▲인건비 상승(28.8%) 순이었다.

/김승호 기자

레이크머티리얼즈

차세대 반도체 배선 소재
몰리브덴 전구체 국산화

레이크머티리얼즈가 차세대 반도체 배선 소재인 몰리브덴(Mo) 전구체 국산화에 나선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합성·정제부터 양산과 공급시스템까지 관련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레이크머티리얼즈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지정서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정부가 선정해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레이크머티리얼즈는 차세대 반도체 배선 소재인 초고순도 몰리브덴(Mo) 전구체 개발 과제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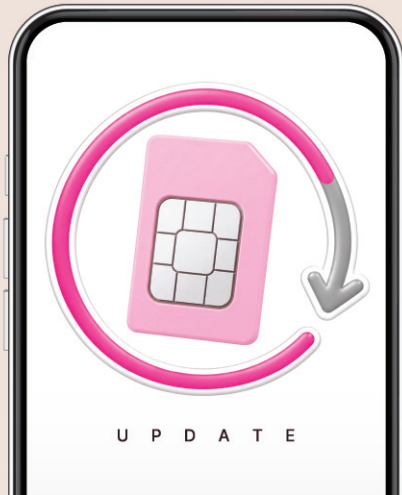
몰리브덴은 3D 낸드 고적층화와 D램 미세화에 따라 기존 텅스텐 배선의 저항 한계를 보완할 소재로 꼽힌다. 관련 전구체는 해외 기업 중심으로 공급돼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분야다.

레이크머티리얼즈는 연내 전용 R&D 사업에 착수해 4년간 정부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을 포함한 약 1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몰리브덴 전구체의 합성·정제·양산 기술과 전용 캐니스터·공급시스템을 함께 개발한다.

/원관희 기자



Simply. U+



고객님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 유심(USIM)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LG유플러스는 고객님의 이동통신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유심 업데이트·교체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유심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10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유심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께서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 : 유심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고객님의

일정 : 2026년 10월 22일부터 순차 진행 예정

※ 고객님의 업데이트 예정일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진행 하루 전에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 ※ 업데이트 중에는 통화 및 인터넷 연결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업데이트 중 '서비스 없음(No Service)'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신 후에도 이용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U+ 매장을 방문해 주세요.
- ※ 삼성윌렛(구 삼성페이) 등 금융·결제 앱은 본인 확인을 위한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 ※ 삼성 휴대폰의 업데이트 전 '다른 SIM 사용 제한' 기능이 켜져 있으면 자동 업데이트 후 비밀번호 인증이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니 업데이트 전 반드시 해제해 주세요. (설정→'다른 SIM 사용 제한' 검색→해제)
- ※ 업데이트 후 화면상에 "비밀번호(PIN) 4~8자리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가 보이고 휴대폰 사용이 안된다면 '설정' 메뉴의 'SIM 카드 잠금' 항목에서 설정한 SIM PIN 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 유심 자동 업데이트가 시작되기 전까지 U+one 앱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24시간 유심 상담센터 080-864-1010

가까운 LG유플러스 매장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LG유플러스는 고객님의께서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엔비디아·AMD, 메타에 40억弗 투자… ‘지분 동맹’ 확대

엔비디아, 메타 AI 비서 ‘뮤즈’ 집중
베라 루빈, 베라 도입 확대 계획
AMD ‘헬리오스’, 시험 가동 중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와 AMD가 메타에 총 40억달러(약 5조3316억원)를 투자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기존 반도체 공급을 넘어 지분 투자까지 확대하면서 AI 인프라를 둘러싼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 간 전략적 동맹이 한층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AMD는 메타의 주식 공모에 각각 30억달러와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총 투자 규모는 40억달러에 달한다. 양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투자 계획과 함께 메타와의 AI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투자는 AI 반도체 공급업체가 주요 고객사의 지분까지 확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엔비디아와 AMD는 그동안 메



AI에 의해 생성된 엔비디아와 AMD가 메타에 투자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이미지.

타의 데이터센터와 AI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해왔다. 앞으로는 자본 관계를 바탕으로 차세대 AI 모델 개발부터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특히 엔비디아는 메타의 AI 비서 ‘뮤즈’와 관련 AI 모델의 성능 개선에 집중

한다. 양사는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효율을 높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메타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컴퓨팅 플랫폼 ‘베라 루빈’과 중앙처리장치(CPU) ‘베라’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내 서버 간 통신 속도를 높이는 네

트워크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AI 비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검토한다.

AI 비서가 단순한 질문 응답을 넘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발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컴퓨팅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 에이전트는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을 의미한다”며 지능형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사용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MD 역시 메타의 AI 인프라 구축에 참여한다. AMD의 AI 서버 시스템 ‘헬리오스’는 현재 메타에 설치돼 시험 가동 중이며 향후 도입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메타는 이미 AMD의 서버용 CPU ‘에픽’을 수백만개 도입했으며 AI 반도체 ‘인스턴팅’을 학습과 추천 서비스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메타가 추진하는 ‘개인용

초지능’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메타는 이용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엔비디아와 AMD의 지분 참여는 이러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기술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수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반도체 공급업체가 고객사에 투자하고 고객사는 확보한 자금으로 다시 AI 인프라를 구매하는 구조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AI 투자 확대가 실제 서비스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반도체 기업과 빅테크 모두 재무적 부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투자의 관건은 자본과 기술로 연결된 협력 관계가 얼마나 높은 AI 서비스 경쟁력과 수익성으로 이어지느냐다. AI 반도체 공급 경쟁이 단순한 제품 성능을 넘어 고객사와의 자본·기술 협력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KT, ‘AI 상담 어시스트’로 고객센터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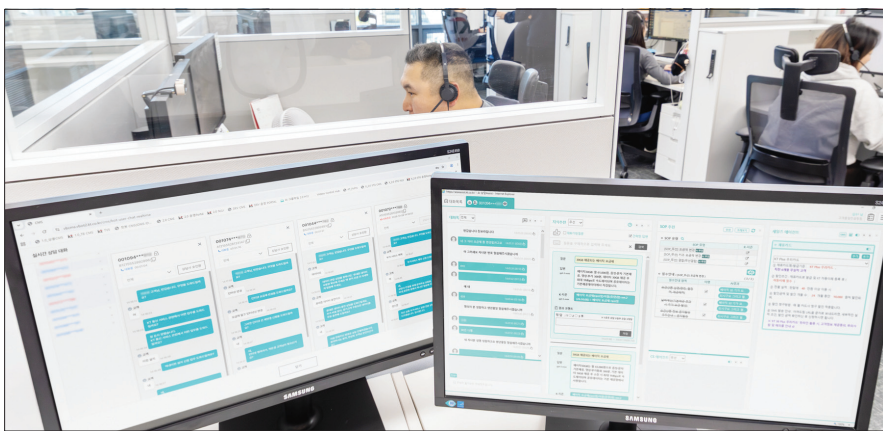
보이스봇에 양방향 대화 기술 적용
120만건 처리, 상담완결률 80% 돌파

KT는 생성형 AI 기반 보이스봇과 ‘AI 상담 어시스트’를 통해 고객센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KT는 먼저 보이스봇 기반의 사후 유지보수(A/S)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A/S 접수, 원격 장애조치, 복구 확인, 출동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사 연결이 어려운 주말이나 야간에

에도 운영한다. 보이스봇으로 기존의 장애 상황을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업무를 줄이면서 고객의 대기와 재문의에 대한 불편을 감소시켰다. 연간 약 20만명의 고객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자연스러운 상담 환경 구현을 위해 보이스봇에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의도 파악 기술과 양방향 대화 기술을 적용했다. 예를 들면 고객이 대화 도중 주제를 바꾸더라도 전체 맥락을 통해 의도를 파악한다. 또한 보이스봇이 동시에 말하고 들으며 실제로 상담사 대화와 유사



고객센터 직원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KT

한 경험을 제공한다.

현재 보이스봇의 상담 처리 건수는 120만건 이상으로, 고객 문의를 한번에 해결하는 상담완결률은 80%를 넘어섰다.

AI 상담 어시스트는 상담사의 업무 효율과 상담 품질을 높이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료 후에는 상담 이력 작성을 위한 유형 분류와 내용 요약을 자동 생성해준다.

또한 상담 품질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상담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AI 어시스트 도입 후

평균 상담시간은 31초 단축됐다. 상담 직원의 이직률도 소폭 감소했다.

KT는 향후 복합적인 고객 문의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봇을 ‘보이스 에이전트’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AI 상담 어시스트 역시 세밀스 상담과 신입 상담사 교육, A/S 지원 등 다양한 업무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AI 컨택센터(AICC) 서비스를 금융·공공·의료·제조·유통 등 산업 분야로 넓히고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msjo@

6시간 만에 1800명 역량 판단 … SK AX, AI 인재평가 솔루션

‘지핏 스튜디오’로 인사담당자 지원

SK AX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인재평가 솔루션 ‘지핏 스튜디오(G-Fit Studio)’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핏 스튜디오는 AI 시뮬레이션으로 지원자의 문제 해결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AI 활용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사담당자의 판단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문제 해결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두 단계로 나뉜다. 비즈니스 문제 해결 단계에서 지원자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세우고 AI 에이전트와 대화하며 문제를 구조화한 뒤 실행 방안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AI에

어떤 질문을 했고, 제시된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고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행동 데이터로 기록돼 인사담당자가 지원자의 역량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비즈니스 문제 해결 단계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을 놓고 심층 면접이 진행된다. AI가 인사담당자, 현업부서 관리자 등 가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30분간 지원자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다. 응시자가 단편적인 답변을 내놓으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 ‘다른 대안보다 낫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등 후속 질문을 던지고, 다른 부서의 반대에 부딪하면 어떻게 설득하겠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인사담당자가 지원자의 문제해결력과 소통능력을 판별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실무형 인재 확보에 유리한 것은 장점이다. 지원자들에게 동일한 과제와 평가 기준이 적용되므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단도 가능하다. 영어·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도 지원해 실제 고객 대응이나 글로벌 업무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파악할 수 있다.

운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 ‘스칼라’ 4기 교육생 선발에서 지핏 스튜디오를 활용한 결과, 1800여명의 지원자 역량을 측정하는데 단 6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 임베딩 모델 2종 오픈소스 공개

개인화 AI 에이전트 핵심 기반 기술

카카오가 개인화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임베딩 모델 2종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카카오는 자체 개발한 ‘카나나-2-임베딩’ 모델 2종을 글로벌 AI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모델은 30억 파라미터 규모의 ‘카나나-2-3b-임베딩’과 13억 파라미터 규모의 ‘카나나-2-1.3b-임베딩’이다. 지난 7월 소형 언어모델(SLM) 4종을 공개한 데 이은 추가 오픈소스 모델이다.

임베딩 모델은 텍스트의 의미를 숫자로 변환해 이용자의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기술이다. 정확한 단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비슷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 개인화 AI 에이전트의 핵심 기반 기술로 꼽힌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전에 이 키웠던 식당’을 찾을 경우 식당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과거 대화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 ‘이프카카오 26’에서도 일상에 흩어진 정보를 연결하는 임베딩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번 모델 2종은 유사 규모의 공개 모델인 ‘라마-네모트론-임베드-1b-v2’, ‘큐렌3-임베딩-4B’와 비교한 평가에서 가장 높은 한국어 성능을 기록했다. 영어 성능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큐렌3-임베딩 대비 높은 추론 효율도 확보했다.

기존 카나나 임베딩 모델과 비교해서도 검색 성능을 개선하고 메모리 사용량과 추론 속도 측면에서 수십 배 이상의 효율 향상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두 모델에는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카나나 오픈 라이선스’를 적용했다. 국내외 연구자와 기업은 이를 활용해 개인화 AI 에이전트와 의미 기반 검색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LG U+, ‘AI 토큰 최적화’ 연구 인정받아

세계 3대 AI 학회 ‘뉴립스 2026’ 워크숍에 관련 논문 2편 채택

LG유플러스가 스마트폰에서 소형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구동하는 토큰 최적화 연구 성과를 글로벌 학회에서 인정받았다. 향후 ‘익시오’ 등 자사의 AI 서비스에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AI 토큰 최적화 연구 관련 논문 2편이 ‘뉴립스2026’의 온디바이스 인텔리전스 워크숍에 채택됐다고 29일 밝혔다. 세계 3대 AI 학회 중 하나로 꼽히는 뉴립스는 구글, 메타,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글로벌 주요 대학 연구진이 참여해 최신 AI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다. 오는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다.

LG유플러스가 발표한 토큰 최적화 기술은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된 메모리와 전력으로도 소형언어모델(SLM)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통화 서비스에 활용할 SLM을 개발하고, 모델 경량화와 추론 가속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 환경에 맞게 최적화했다. 그 결과, 최신 클라우드 AI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기존 방식보다 처리 속도를 약 4.5배 높이고 배터리 소모는 약 77% 줄였다.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스마트폰의 제한된 연산 자원과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연구에서 확보한 기술을 향후 자사의 AI 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에서 검증한 최적화 역량을 서버 GPU 환경으로 확대해 고객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박현주 회장, 일본 증권사 품고 글로벌 M&A 보폭 넓힌다

(미래에셋그룹)

일본 산코증권 지분 전량 인수
자기매매 강화 후 리테일 진출
오카산증권그룹과 협력 논의

“과거에는 베트남 같은 곳도 갔지만 앞으로 M&A는 더 큰 곳으로 가려 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가 예고한 해외 인수·합병(M&A)이 일본 산코증권 인수로 구체화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9일 미국 자회사를 통한 산코증권 지분 전량 취득과 출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하고,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발표했다. 박 회장이 지난 27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설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일본 증권사 인수를 예고한 지 이틀 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산코증권의 기존 자기매매 사업을 보장하고 현지 운영 기반을 강화한 뒤 리테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조직 체계를 정비하며 일본 개인투자자 시장으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자기매매 보장 후 리테일…오카산과 협력 논의

산코증권은 오카산증권그룹 산하의 자기매매 전문 증권사다. 자기매매는 고객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미래에셋증권의 일본 시장 진출을 표현한 이미지.
/미래에셋증권·오카산증권그룹, 시로 생성한 이미지

주문을 중개하는 위탁매매와 달리 회사 고유자금으로 주식·채권 등을 거래해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산코증권은 1953년 설립돼 1980년 오카산증권그룹에 편입됐다. 2002년 도쿄증권거래소 종합거래참가자 자격을 취득했고, 2007년에는 도쿄에 자기매매 전용 트레이딩센터를 열었다. 올해 5월 개인고객 사업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이전한 뒤 자기매매에 집중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출자금 가운데 주식 취득대금을 제외한 자금을 산코증권에 투입

해 사업을 확대한다. 리테일 사업은 관련 절차와 조직 체계를 갖춘 뒤 추진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출시 시점이나 활용 플랫폼은 제시하지 않았다. 거래 종결 일정도 계약상 선행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지 시장과 제도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고, 산코증권의 기존 사업을 보장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체제 준비를 거쳐 장래적으로 리테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2024년 소액투자 비과세제

도(NISA)의 혜택이 확대되면서 가계자금을 예금에서 주식·펀드로 유도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증시 활황과 기업의 자금조달·M&A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외국계 금융사들도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카산과 상품·서비스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외신에서는 그룹 산하 글로벌X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오카산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회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시 일본으로…‘큰 시장’·기술 역량에 시선

일본은 미래에셋증권이 처음 진출하는 시장은 아니다.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은 1984년 8월 국내 증권사 최초로 도쿄사무소를 열고, 1996년 지점으로 승격해 한국 주식 중개와 한일 간 자본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일본 경기침체 속에 2002년 3월 지점을 폐쇄했지만, 2006년 사무소를 다시 열고 2011년 지점으로 승격했다. 당시에는 일본 기관투자자의 한국 투자와 한일 기업 간 M&A·기업공개(IPO) 등을 중개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2015년 지점을 사

무소로 축소하기로 했고, 2016년에는 일본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번 일본 증권사 인수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 ‘미래에셋 3.0’ 전략의 일환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체 사업 성장과 M&A를 병행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넓히고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 세계 11개 지역에 현지법인 25개와 사무소 3개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인력은 약 5300명이다.

박 회장은 지난 27일 강연에서 “제일 하고 싶은 곳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말했다. 중국 본토에서 추진 중인 금융사 인수도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 대상의 기술 역량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일반적인 운용자산(AUM)이 있는 회사는 관심이 없다”면서 “그런 회사는 외형은 클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자산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미래에셋이 은행을 안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단순한 외형 확대보다 AI·로보어드바이저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역량에 주목하겠다는 뜻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사상 최대 주주환원에도 주가 역주행…삼성전자 4% 급락

“자사주 매입보다 배당에 치중” 지적
남은 재원 환원 시점·방식 불확실

‘화끈한 주주환원을 기대했는데 예상했던 30조원에 그쳐 감이 빠졌다’, 회사가 직원들 성과급만 챙기고 자사주 매입·소각도 우선주 주주들만 챙긴다.’

29일 삼성전자 주가는 24만2500원에 출발한 뒤 뚜렷한 반등 없이 전 거래일보다 4.13% 하락한 23만20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30조원(1주당 4601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공시했는데, 사상 최대 규모 주주 환원 계획과 달리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의 실망과 불만이 주가로 바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주환원 방안 공시 직후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섣토가 빗발쳤다. 삼성전

자 보통주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올리는 자사주 소각을 외면한 채 일회적인 보상 성격인 배당으로 때우려 한다는 지적이었다. 자사주 소각이란 회사가 자사 주식을 사서 등록을 말소하는 걸 뜻한다. 삼성전자는 “보통주와 우선주 간 가격 차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인지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반영해 우선주 매입 비중을 적극적으로 고만해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총 90조~110조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배당을 제외한 55조~75조원의 활용 방안은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남은 재원을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어떻게 배분할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 1347억원어치

를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하며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배당 30조원만 확정됐고 남은 55조~75조원의 환원 시점과 방식이 미정인 점이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한 것으로 해석됐다. 배당은 즉시 과세 대상인 점도 외국인들에겐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16억원, 525억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주주환원책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소액주주들의 글이 잇따랐다. 직장인 이모(42)씨는 “장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자사주 소각을 원했는데 일회성 요인이 큰 배당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1% 미만을 가진 소액 주주는 지난 6월 말 현재 797만명이 넘었다. 6개월 전의 419만명보다 두 배 가

까이 급증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방안으로 배당에 무게를 실는 배경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있다. 금산법 24조는 같은 기업 집단의 금융계열사들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산업자본이 금융계열사를 그룹 지배력 확대 목적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8.51%, 1.49%로 합산 10%다.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사들여 소각하면 발행 주식 총수가 줄어 두 회사 지분율은 자동으로 올라간다. 한도를 지키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초과분을 팔아야 한다. 현금 배당은 주식 수를 건드리지 않아 이런 부담이 없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82% 오른 151만4000원에 마감했다. 전날 SK하이닉스는 이사회가 3분기(7~9월) 현금배당 14조원과 자사주 매입 20조원을 결의했다며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을 공개했다. 더불어 올해 8월 발표한 40조원을 포함해 총 60조원 이상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투입한다. 회사는 지난주 40조원어치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다며 빠른 시일 내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주환원책을 ‘진짜’ 주주환원이라고 평가하며 “최대주주에 유리한 배당을 고집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소각 정책 정책의 지속성을 약속했고, 영업의 일회성 이익 역시 주주와 공유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증권(300만원), 한화투자증권(315만원), 메리츠증권(320만원) 등 대다수 증권사는 기존에 제시했던 300만원대의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허정윤 기자

TIGER 美S&P500, 개인 순매수 5조 돌파

미래에셋, 국내 상장 ETF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 ‘TIGER 미국S&P500 ETF(360750)’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금액이 지난 28일 5조18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레버리지·인버스를 포함한 국내 상장 ETF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종전 단일 ETF의 연간 개인 순매수 최대 기록은 지난해 같은 상품이기록한 3조6387억원이다. 올해는 200거래일 가운데 185일 개인 순매수가 이어졌다. 10거래일 중 9일 이상 매수 금액이 매도 금액을 웃돈 셈이다. 현재 순위를 연말까지 유지하면 2024년부터 3년 연속 개인 순매수 1위에 오른다.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상품에도 개인 자금이 유입됐다. ‘TIGER 미국 나스닥100 ETF’와 ‘TIGER 미국배당 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는 각각 2조3814억원, 1조2998억원으로 집계됐다.

TIGER 미국S&P500을 포함한 3종의 합산 개인 순매수는 8조8635억원이다.

/허정윤 기자

iM증권 준법·윤리경영 강화

iM증권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026 윤리·준법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사에는 임원과 부사장, 윤리경영 실천 리더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내부통제와 부패 방지를 주제로 한 전문가 교육이 진행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인제 변호사는 증권업계 주요 컴플라이언스 동향과 부패 방지 통제 실무를 설명했다. 딜로이트 안진 최창석 상무는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책무 구조도의 이해, 실무 운영 방안 등을 다뤘다.

임직원의 준법·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도 열렸다.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김아영 기자 aykim@

메리츠증권, MTS 전용 ELS 14종 출시

기초자산으로 글로벌 지수 구성

메리츠증권은 MTS 전용 주기연계증권(ELS) 14종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상품은 ‘메리츠 Super ELS 제700회’로,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11.61%의 수익이 지급되는 금융상품이다. 코스피200, 니케이225, S&P500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했다.

상품 가입 이후 4개월마다 상환 기회를 부여해 조기상환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만기는 3년이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증가가 모두 만기 배리어 이상이거나, 기초자산 모두 한 번이라도 낙인(knock-in) 배리어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총 3년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증가가 만기상환 배리어 미만이며, 투자기간 중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낙인 배리어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액 손실도 가능하다.

메리츠증권은 종목형 ELS 6종과 지수형 ELS 7종도 함께 출시했다. 매월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월지급형 상품과 추가 조기상환 기회를 부여하는 리드형 상품 등 다양한 구조로 상품 라인업을 준비했다.

온라인 ELS는 그간 개인고객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고객 수요에 맞춰 이번 회차부터 청약가능대상을 법인계좌까지 확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노동부, 퇴직연금 노후자금화 촉진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 단계적 확대

내달 중 퇴직급여법 개정안 마련
연금형태 지급 전환 ‘옵트아웃’ 추진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 구체화한 것”

퇴직금을 한꺼번에 다 받겠다는 의사를 퇴직 전 미리 표하지 않을 시 연금 형태의 지급으로 자동 전환된다. 또 현재 급전이 절실한 퇴직자의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 반면, 향후 원금은 그대로 놔둔 채 이를 담보로 한 대출상품 가입이 권고된다. 후년부터는 100명 이상 사업장 모두가 퇴직연금의 사외 적립(은행·증권·보험사 등 외부 민간금융회사에 맡김) 의무를 지닌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장기 적립을 통해 노후 자금으로 연결되는 연금수령 방식을 촉진하는 방침이다.

우선 담보대출을 활성화한다. 현행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주거·의료비 등 긴급한 사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노동부는, 개선 방향으로 담보 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에는 담보제공 한도 확대(현행 50→향후 70% 등)를 허용하는 동시에 융자 상환 불이행에 대한 압류 권한도 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용한다.

현재 퇴직자는 퇴직급여 지급 시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연금 형태의 수령 촉진을 위해, 사전에 일시금 수령의 의사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이른바 옵트아웃(opt-out: 선 실행, 후 거부)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현재 연금성이 미흡하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직·퇴직과 주택 매입 등 현실적 수요로 인해 연금수령(만 55세) 이전 중도 활용 선호가 지속되면서 노후준비 지연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의 사외 적립 의무도 확대된다. 2028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사내가 아닌 사외(금융회사)에 직원 퇴직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어 99~10

인 사업장은 2029년 1월 1일부터, 10인 미만은 203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이러한 내용의 정부발 개정안은 11월 중 세부안이 마련되고 12월 국회 통과가 시도된다.

노동부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당정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도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고 했다.

또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이번 방안은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축평원, AI 기반 계란 품질평가 기술 고도화

박수진 원장 “축산유통 현장 개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공지능(AI) 기반의 계란 품질평가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계란 선별기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등급판정이 가능한 AI 기술 개발에 나선다. 난각에 품질등급(1+·1·2) 표시를 활성화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축평원은 품질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품질분석 데이터 활용의 기반 마련을 위해 AI 기반 품질평가 장비를 개발·도입해 왔다.

기존 계란 판정은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육안 검사에 따라 진행되던 반면, 계란 품질평가 장비는 AI 분석을 통해 외관·파각(깨짐)에 대한 수준을 측정한다. 외관은 AI 비전 측정을 통해 항목·수준별 분석을 진행한다. 파각(깨짐) 유무는 AI가 투광 판정 이미지를 분석해 확인한다.

이 장비는 지난해 개발이 완료됐다. 현재 경기 평택에 위치한 YJ푸드에서 실제 등급판정에 활용하고 있다. 판정의 객관성 및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축평원은 AI 장비를 통해 축적한 판정



데이터를 통계 분석해, 농가와 유통 현장에 제공하는 피드백 모델도 구축하고 있다. 계란 집란·취급 과정의 개선을 지원해 농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고품질 계란의 유통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올해 계란 집하장(GP) 10개소에 AI 기반 계란 품질평가 기술이 탑재된 장비를 추가로 보급했다. 2030년까지 5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시간 등급판정이 가능한 AI 기술의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품질등급(1+·1·2)을 매긴 후 계란 껍데기에 표시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사진)은 “AI 기반 계란 품질평가는 국민에게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축산물 품질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연세 기자

공정위, 셀트리온 하도급법 위반 제재

부당한 위탁취소 등 과징금 6.3억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판매 기업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 위탁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셀트리온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수천만 개에 달하는 물량을 임의로 취소하고, 계약변경 서면조차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9일 셀트리온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총 6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7차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셀트리온은 전문가용(POC)과 개인용(OTC) 간의 품목 변경을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법정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가 이미 작업에 착수한 후에야 뒤늦게 서면을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아직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총 3717만 개(2차 발주 중 186만 개, 7차 발주 중 3531만 개)의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4000만 원,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위반 행위에 5억 9000만 원 등 총 6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경계약에 대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제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석유공사, 유전 생산예측 AI 모델 개발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 수상
해외 유전 생산성 극대화 기대

한국석유공사가 대규모 해외 유전 생산데이터를 학습한 생산예측 AI(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석유공사 보유 해외 생산유전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공사는 지난 28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에서 AI 혁신상(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AI 실증·PoC(개념 검증) 부문’에 ‘AI로 극복하는 고유가 위기: 지능형 해외유전 생산관리 자동화 실증’ 과제로 참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석유공사 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무를 총괄했으며, 인하대학교가 산학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석유공사-인하대 공동 연구진은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유전 17개 유전에서 축적된 8년 치의 방대한 생산 자료, 약 461만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학습한 오일샌드 유전 생산예측 AI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오일샌드 유전은 점성이 매우 높은 초중질유(비투멘)가 모래와 섞여 있어 그대로 채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하에 고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8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에서 AI 혁신상(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석유공사

온의 스팀을 강제로 주입해 유동성을 높인 뒤 채유하는 방식을 쓴다. 문제는 현장의 스팀 공급 설비 용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한정된 스팀을 어떤 유정에, 얼마나 배분하느냐에 따라 전체 생산성이 완전히 갈리게 된다.

이번에 개발된 AI 모델은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유정별 원유 생산량을 정확히 예측한다. 아울러 수많은 스팀 주입 시나리오 가운데 원유 증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배분안’을 신속히 찾아낸다. 수동 제어나 단순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정밀 제어가 가능해진 셈이다.

연구팀은 오는 11월 캐나다 현지 유전에서 해당 AI 모델 시범운영에 도입할 예

정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내년부터는 캐나다 현장은 물론 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 해외 생산유전으로 단계적 확장 적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추가 투자비 없이 해외 생산유전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기존 고가의 해외 상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벗어나 자원개발 AI 역량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공사가 자체 개발한 오일샌드 유전 생산 예측 AI 모델이 공공기관 혁신 서비스 성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AI 모델의 현장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가스공사-iM뱅크, 600억 상생펀드 운용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8일 대구 수성구 iM뱅크 본사에서 iM뱅크와 ‘더 좋은 지역 경제를 위한 상생펀드 업무 협약’을 갱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흥익락 가스공사 시장과 강정훈 iM뱅크 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2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이번 협약을 통해 600억 원 규모로 3배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펀드는 가스공사와 iM뱅크가 각각 300억 원씩 출자하는 1대 1 매칭 방식으로 조성되며,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자금 대출로 활용된다.

이번 상생펀드 협약으로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실질적인 유동성 확보와 경영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해 대구 이전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8평 옥탑방에 모인, **짠하지만 유쾌한 인생들!**

오늘도 버틴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뮤직 드라마

**망원동
브러더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예매하기

이번엔 진짜 잘될 거야!

아구아 해장국

타격타격하다가, 어느새 **식구**가 된다!

2026.10.09 ~ 2027.01.31 | 대학로 루미나아트홀

수능 ‘AI 안경’ 단속 고삐 죄다… 판별책임·사전예방은 과제

교육부, 시험장별 판별 인력 배치
부정행위 응시 제한 1년 → 3년 추진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

교원 82% “스마트안경 식별 어려워”
전교조, 책임 명확화 등 강화 촉구

올해 수능부터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담 인력이 시험장마다 1명씩 배치된다. 교육부가 전담 인력 투입과 함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개입 시점과 최종 판단 주체 등 감독교사의 판단·책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에 따르면,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 1명을 지정·배치한다.

현장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을 거쳐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로 연결되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감독관의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확대한다. 보험에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된다.



교육위 국정 감사에 등장한 AI 스마트 안경.

/뉴스시

부정행위 제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로 간주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고발·수사 의뢰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1년인 수능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제재 강화 조치는 대학별고사에도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자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도 검토한다. 2028학년도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담 인력 배치만으로 현장의 판별 부담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3%는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

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일반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했을 때 발생할 민원·분쟁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64.4%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안경과 일반 안경을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48.0%, ‘스마트안경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9%였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 대책에 대해 전담 인력 배치와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면서도, 일반 감독관에게 전문적인 기기 판별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의심 기기 발견 시 보고 절차와 전담 인력의 개입 시점, 최종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감독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이 직접 대응하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확대만으로는 교사가 민원이나 소송에 직접 대응하면서 겪는 부담까지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교원에 대해서

는 교육당국이 소송 대응을 주도하는 등 기관 차원의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전교조는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 규정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계획적인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험장 입실 단계부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와 탐지 기술·장비 도입을 촉구했다. 부정행위 유형별 제재 기준과 불이익도 수험생에게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험생들도 부정행위 단속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안이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기 고양시의 고등학교 3학년 강 모군은 “부정행위가 나오면 시험장 분위기를 망칠까 걱정”이라며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불안이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고, 올해 1학기 서울 중·고교 내신시험에서도 관련 사례 2건이 확인됐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2028 대입, 내신만큼 중요한 ‘권장과목’ 선택

주요 대학 학종 선발 70%에 적용
의학계열 미적분Ⅱ·자연계 수학 중시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된 첫 세대가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에는 대학별 권장과목이 주요 입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학들이 전공과 연계된 과목 이수 여부를 학생부 평가에 반영하면서, 내신 성적뿐 아니라 어떤 과목을 선택해 공부했는지도 중요해지고 있다. 28일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는 2028학년도 권장과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장과목은 학과별 전공 특성과 학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고려해 이수를 권하는 과목이다. 필수 이수 과목과 달리 권장과목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지원자의 과목 선택이 전공 관심과 학업 준비도를 판단하는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상위 20개 대학 중 권장과목을 발표한 대학은 15곳이다. 이들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인원 1만4611명 중 권장과목 지정 모집 단위의 선발은 1만148명(69.5%)이다. 전체 1030개 모집 단위 중 567개(55%)도 권장과목을 제시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권장과목을 두지 않았고, 세종대·한국외대·홍익대는 구체적인 시행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주요 대학 학종의 약 70%를 권장과목이 적용되는 모집 단위에서 선발하는 만큼,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학종 전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계열별로 보면 서울 주요 의학계열 대학 중 권장과목을 지정한 11곳은 모두 수학에서 미적분Ⅱ를 요구했다. 과학은 2학년 과목인 생명과학과 화학을 각각 9곳이 지정했다. 과학 일반선택 과목을 핵심과

목으로 지정한 대학은 생명과학이 경희대·서울대·동국대·인하대 등 4곳, 화학이 경희대·서울대·동국대 등 3곳이다. 물리학과 지구과학을 핵심과목으로 지정한 대학은 없었다.

자연계열은 수학 과목 선택이 핵심이다. 권장과목 모집 단위 가운데 미적분Ⅱ를 권장한 곳은 341개, 기하는 239개로 집계됐다. 일반선택 과목인 대수(157개), 미적분Ⅰ(165개), 확률과통계(158개)보다 지정 규모가 컸다.

인문계열은 종합전형 498개 모집 단위 중 170곳이 권장과목을 지정했다. 이들의 선발 인원은 2519명으로 전체(7760명)의 32.5%다. 그룹별 지정 비율은 무전공 46.9%, 상경 36.7%, 사회·교육 32.4%, 인문·어문 28.3% 순이다.

내년 대입에서는 과목 선택이 진학 전략의 일부가 된다.

/김수정 기자

대학 온라인 강좌 늘고, 기숙사 수용률 하락

4년제 대학 공개강좌 12.9% 증가
기숙사 수용률 21.7%… 0.5%p ↓

대학의 교육·생활 여건이 지표별로 엇갈렸다. 4년제 대학은 온라인 공개강좌와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늘었지만, 기숙사 수용률은 하락했다. 전문대학은 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줄고,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법정 부담금 부담률도 전년보다 낮아졌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4개교 등 316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온라인 대학 강의가 늘었지만, 증가세는 수도권에 더 컸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의 공개강좌는 2805개로 전년보다 12.9%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은 1496개로 18.4% 늘어 비수도권 대학의 증가율 7.2%를 웃돌았다.

학습 자료 확보를 위한 지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15만7697원으로 3.4% 증가했다. 국·공립대는 21만3210원, 사립대는 14만7원으로 각각 5.4%, 2.3% 늘었다.

반면 올해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1.7%로 전년보다 0.5%p포인트 하락했다.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34만4730명으로 늘었지만, 재학생 증가와 1인실 확

대·다인실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대학의 수용률은 17.3%로 비수도권 대학의 25.2%보다 낮았다. 기숙사 수용 인원이 늘었어도 전체 재학생 대비 수용 여력은 줄었으며, 수도권 대학의 주거 지원 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2만4173원으로 3.2% 감소했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5.5% 줄어 수도권 전문대학의 감소율 0.6%보다 컸다. 4년제 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에서는 학생당 자료 구입 지출이 줄었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감소 폭이 컸다.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4년제 대학에서 교직원 82.9%, 재학생 60.2%로 상승했지만, 전문대학에서는 각각 86.8%, 69.4%로 소폭 하락했다.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지표도 악화했다.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2%로 전년(100.5%)보다 4.3%p 하락해 100% 아래로 내려갔다. 재산 보유액은 늘었지만 확보 기준액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마련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재산이 기준에 부족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로 전년보다 1.2%p 하락했다.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연금·보험료 등 680억원 가운데 실제 부담액은 3614억원에 그쳤다.

/김수정 기자

한양사이버대 ‘하이온’, 韓 캐릭터 어워즈 대상

대학 브랜딩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학과 소개·홍보 콘텐츠 등에 활용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공식 캐릭터 ‘하이온’이 대학 브랜딩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한양사이버대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하이온’이 산업 분야 대표 캐릭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이온은 한양대의 상징인 사자를 바탕으로 만든 캐릭터다. 이름은 ‘LION’의 어감에 한양(HY)과 온라인 연결을 뜻하는 ‘ON’을 더해 지었다. 언제 어디서나 배움이 이어지는 대학이라는 교육 방향을 담았다.



‘2026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 시상식에서 한양사이버대학교 김학민 미디어전략실장(오른쪽)이 시상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양사이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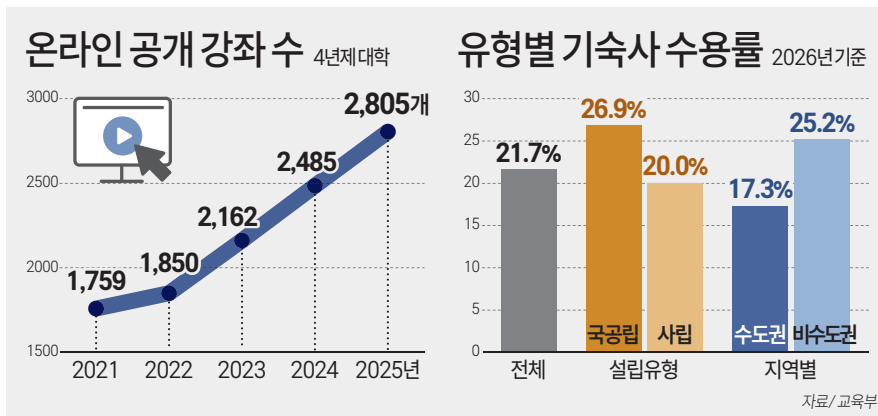
캐릭터는 학과별 전공 소개 콘텐츠에 활용하고 있다. 건축도시공학과와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교육공학과, 뉴미디어

디자인학과 등은 전공 특성을 반영한 캐릭터 이미지를 제작해 학과와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표정과 동작을 다양하게 구성한 이미지에 더해 3차원(3D) 콘텐츠도 선보였다.

이모티콘과 배경화면, 카드뉴스, 학사 안내 콘텐츠에도 적용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숏폼 등 온라인 채널뿐 아니라 인형, 열쇠고리 등 기념품, 행사 포토존에도 배치해 오프라인 접점을 넓히고 있다.

한양사이버대 관계자는 “앞으로 학과 소개와 입학 안내, 학습 응원 콘텐츠 등에 하이온을 활용하고 이모티콘과 기념품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신세계, 롯데百 센텀점 품는다… 쇼핑·문화 거점으로 재탄생

센텀시티점 양수도 계약 체결
신세계, 백화점·센텀몰 연계 개발
호텔·오피스·레지던스 조성 추진

롯데, 부진 점포 매각 수익성 개선
부산본점·동부산점에 투자 집중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20년 가까이 경쟁해 온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의 사업 구도가 바뀐다. 신세계가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을 인수해 일대를 대규모 복합상권으로 개발하는 반면, 롯데는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핵심 점포에 투자를 집중한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이 롯데쇼핑과 부산 센텀시티점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롯데 센텀시티점은 거래 종결까지 정상 영업하며 구체적인 영업 종료 시점은 심사 이후 확정된다. 이번 거래는 같은 상권에서 경쟁해 온 두 회사의 상반된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 전경.

/신세계

2007년 문을 연 롯데 센텀시티점은 2009년 인접한 곳에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들어서면서 경쟁을 벌여왔다.

신세계는 기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대비 3배 큰 규모와 명품·체험형 콘텐츠를 앞세워 상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2016년 비수도권 백화점 최초로 연매출 1

조원을 넘어섰으며 2023년부터 3년 연속 2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롯데 센텀시티점은 신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실적이 부진했다. 한때 연매출 3000억원을 넘었지만 2023년에는 1300억 원에 그쳤다.

롯데는 점포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

토했으나 성장성과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자산 매각을 결정했다.

신세계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센텀시티 일대를 쇼핑·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결합된 '신세계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신세계 센텀시티점과 2016년 개장한 센텀시티몰에 인수 공간을 연결해 대규모 복합 라이프스타일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점포는 쇼핑·문화·여가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재편한다. 센텀시티 내 C부지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해당 부지에는 럭셔리 호텔과 프라이م 오피스, 프리미엄 레지던스 등을 갖춘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신세계는 백화점과 신규 시설을 연계해 쇼핑뿐 아니라 업무와 숙박, 관광 수요까지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주형 신세계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양수도는 양사가 경쟁을 넘어 각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신세계 센텀시티를 쇼핑과 문화, 관광, 도심형 공간이 유기적

으로 융합된 신세계 타운으로 개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핵심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센텀시티점 매각을 통해 확보한 투자 여력을 부산본점과 롯데몰 동부산점 등 핵심 점포에 집중할 전망이다. 부산본점은 이달 지식재산권(IP) 전문관 개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전관 리뉴얼에 나서고, 동부산점은 입점 브랜드와 상품 구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부실점포를 정리하고 대신 알짜 점포를 키우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는 올해 인천점과 노원점의 전관 리뉴얼을 완료했으며 잠실점과 본점에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대구 수성, 서울 상암, 인천 송도 등에서 신규 쇼핑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 센텀시티점 직원들은 부산 지역 내 다른 점포로의 전환 배치가 우선 검토된다. 입점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계약 조건에 따라 영업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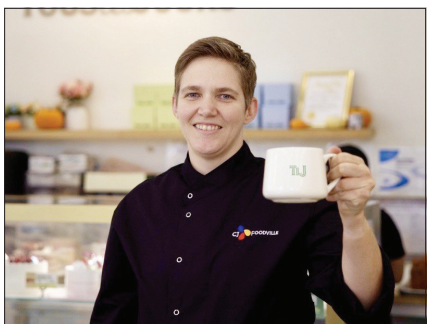
metro

뚜레쥬르, 아시아 입맛 잡을 'K-음료' 띄운다

美 음료 전문가, 아시아 3국 순회
현지 식재료·K-디저트 접목 추진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음료 개발 및 글로벌 운영 역량을 아시아 주요 사업장에 전파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국의 로컬 트렌드를 반영한 K음료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뚜레쥬르 미국 법인의 음료 스페셜리스트 알렉산드라 헤이거(Alexandra Hager)가 30일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주요 사업장을 순회하며 현지 시장과 소비자 트렌드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각국에서 주목받는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음료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음료 개발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커피나 차(Tea)에 K베이커리 또는 K디저트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콘셉트의 음료



뚜레쥬르 미국 법인의 음료 스페셜리스트 알렉산드라 헤이거(Alexandra Hager)가 30일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주요 사업장을 순회하며 현지 시장과 소비자 트렌드를 조사한다.

/CJ푸드빌

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알렉산드라 헤이거가 지원해 참여했다. 헤이거는 2018년 뚜레쥬르에 합류한 이래 미국 시장에서 한국적 특색을 담은 다양한 시그니처 음료를 선보여왔다. 2022년 4월 스페셜티커피

협회(SCA)가 주최하는 미국 커피 챔피언십(U.S. Coffee Championships)에서 커피 칵테일 부문 1위를 수상한 바 있으며, 뚜레쥬르에 합류하기 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스타벅스와 블루보틀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했다.

대표적인 메뉴는 뚜레쥬르의 인기 케이크를 음료로 재해석한 '타리미수 라떼'부터 한국적인 식재료를 활용한 '고추장 카라멜 라떼'까지 다양하다. 특히 '고추장 카라멜 라떼'는 글로벌 브랜드 오틀리(Oatly)와 협업해 개발한 메뉴로, 고추장의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풍미를 라떼에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뚜레쥬르는 이번 글로벌 투어 프로젝트를 통해 상품 개발 역량과 운영 노하우를 해외 사업장에 공유하고 글로벌 프랜차이즈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동서식품, 마시멜로 2배 늘린 '오레오오즈'

별·하트 등 파스텔색 마시멜로 추가

동서식품이 오레오오즈 시리얼에 다양한 모양과 색상의 마시멜로를 더한 신제품 '오레오오즈 마시멜로 파티'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레오오즈'는 1997년 미국에서 탄생한 초코 시리얼 브랜드로, 코코아 풍미의 오즈링과 달콤한 마시멜로의 조화가 특징이다. 마스코트는 '오즈맨'이다.

이번 신제품 '오레오오즈 마시멜로 파티'는 기존 오레오오즈 대비 마시멜로 함량을 2배 늘렸다. 특히 별·하트 등 다양한 모양의 파스텔 색상 마시멜로를 더했다. 우유와 함께 시리얼로 즐기는 것은 물론 간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요거트 등에 곁들이면 오



신제품 '오레오오즈 마시멜로 파티'. /동서식품

즈링의 바삭한 식감과 마시멜로를 활용한 토평으로도 즐길 수 있다. '오레오오즈 마시멜로 파티'는 450g 대용량 제품과 25g 컵 타입 두 가지로 출시된다.

동서식품 유행 마케팅 매니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과 트렌드를 반영해 새로운 시리얼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국순당 막걸리 풍미 담은 캔디 말랑쫄득 '막쥬' 개발

국순당이 크라운제과와 협력해 '국순당 쌀막걸리'를 활용한 발효쌀 추잉캔디 '국순당 막쥬'를 개발하고 막걸리 시장의 외연 확장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국순당 막쥬'는 국순당의 지식재산권(IP)과 '국순당 쌀막걸리'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국순당의 발효 기술과 크라운제과의 캔디 제조 노하우를 결합해 막걸리 고유의 부드러운 곡물 풍미와 말랑하고 쫄득한 식감의 추잉캔디를 구현했다.

100% 국내산 쌀과 국순당이 직접 키운 누룩 및 효모로 세 번의 발효를 거쳐 빻은 '국순당 쌀막걸리'를 원재료로 사용해 쌀의 부드러운 풍미를 담았다.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은 휘발돼 잔존 알코올은 없다.

/김서현 기자

현대百, 장호진·박홍진 부회장 승진

7년 만에 전문경영인 부회장 체제 부활
임원 50명 인사… 경영 안정·책임 강화

현대백화점그룹이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이사 사장과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 사장을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며 7년 만에 전문경영인 부회장 체제를 부활시켰다.

핵심 계열사의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면서 고위 임원들의 직급을 높여 경영 안정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9일 현대백화점그룹이 부회장 2명, 사장 3명, 부사장 3명을 포함해 승진 27명, 전보 23명 등 총 50명에 대한 2027년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발령 일자리는 내년 1월 1일이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전문경영인 부회장 체제의 부활이다.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전문경영인이 부회장에 오른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이사와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는 부회장 승진 이후에도 기존 대표직을 유지한다.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

장호진 신임 부회장은 1987년 현대그룹에 입사해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장과 기획조정본부장,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를 거쳤다. 2023년부터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이사를 맡아 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다.

박홍진 신임 부회장은 1995년 현대경제연구원에 입사해 현대백화점 영업본부장을 지냈으며, 2015년부터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시장 승진자는 3명이다. 한광영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운영식 현대지에프홀딩스 부사장과 이현상 현대그린푸드 부사장도 사장단에 합류했다.

/김서현 기자

롯데칠성, '쥬틴큐' 한정판 완판에 2탄 선포

후속 패키지 물량 3만 세트로 확대

롯데칠성음료가 단종 11년 만에 재출시한 '쥬틴큐' 한정판 패키지가 완판된 가운데, 새로운 콘셉트의 후속 패키지를 한정수량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0월 중순 쥬틴큐 재출시를 기념해 '쥬틴큐 보물상자' 기획 패키지 1만2000세트를 한정수량 출시했다. 패키지는 제품 2병, 스테인리스 전용잔, 기념 주화로 구성됐으며, 쥬틴큐 출시 연도를 기념한 1980세트에는 1.5돈 상당의

순은주화가 동봉됐다. 편의점, 대형마트 및 하나로마트 등에 입점한 1만2000세트는 공장 출고 기준 하루 만에 전량 소진됐다.

새롭게 선보이는 쥬틴큐 패키지 콘셉트는 '고장 난 쥬틴큐 타임머신'이다. 과거 '쥬틴큐를 마시면 다다음 날 깨어나 숙취가 없다'는 온라인상의 유머를 활용해 측면을 주제로 기획됐다. 이번 패키지는 제품 2병과 수면안데, '숙면 중' 문고리 카드로 구성됐다. 새로운 패키지는 기존 쥬틴큐 보물상자' 패키지보다 2배 이상 많은 총 3만 세트를 준비했다.

/김서현 기자

전기식부터 사우나 체험까지… 업종 넘나드는 일상케어 경쟁

K-웰니스 ‘열풍’

올리브영, ‘올리브베러 성수점’ 공개
중소 브랜드 입점해 생태계 구축

아모레퍼시픽 ‘슈퍼레티놀 젤리’
한미약품, 전기식 ‘에피슬림’ 개발

외국인, 헬스케어 영역 소비 다양화

뷰티, 제약, 유통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며 건강과 휴식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K웰니스’가 소비 시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화장품을 바르거나 영양제를 섭취하는 수준에서 업종을 넘나드는 융합 비즈니스 경쟁이다.

29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K뷰티 유통사 CJ올리브영은 웰니스 대중화에 박차를 가한다. 올리브영은 웰니스 전용 매장 ‘올리브베러’를 5호점까지 확장했다. 지난 1월 올리브베러 광화문점을 처음 선보였고 이달 30일 서울 성수에서 ‘올리브베러 성수점’을 공개한다.

올리브베러 성수점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 영업면적 185평 규



올리브베러 성수점 조감도.

/CJ올리브영

모로 역대 올리브베러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올리브영은 젊은 소비자층과 외국인 관광객이 모여드는 성수 상권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개월간 축적한 올리브베러 고객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소 생소했던 웰니스를 즐겁고 지속 가능한 일상 루틴’으로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실제로 이번 성수점은 오감 체험형 공간을 갖췄다. ‘베러 바’는 자신만의 건강

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섭취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웰니스 식품을 맞춤형 메뉴로 제공한다. 저당·제로·비건 간식을 모은 ‘스위츠 라이브러리’, 입욕 및 바디케어에 위해 ‘사우나’를 주제로 꾸며진 구역도 운영한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유망 중소 웰니스 브랜드를 입점시켜 소비자와 연결함으로써 동반 성장하는 K웰니스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SK바사, ‘美 1310억 지원’ 백신 개발 참여

콩고민주공화국서 확산 중인
분디부고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백신 공정 확장, 대량 생산 주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신종 팬데믹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개발 및 생산에 나선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비영리 바이오메디컬 연구기관인 국제에이즈백신추진본부(IAVI) 및 힐레만 연구소 등과 함께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 전략대비대응청(ASPR)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이 최대 9900만 달러(약 1310억 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확정된 초기 지원금은 3600만 달러(약 477억원)다.

이번 프로젝트는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C)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분디부고 바이러스(BDBV)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ASPR/BARDA의 지원금은 임상 1상을 포함한 임상·규제 활동

과 대유행 대응 백신 생산, 보건 안보를 위한 공급에 투입될 예정이다.

10월 25일 기준 누적 확진 1만60명, 사망 4887명을 기록한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유행은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BDBV에 특화된 백신이나 전용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프로젝트 참여 기관들은 1회 접종만으로 신속한 면역 형성을 유도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분야별 전문 역량을 결합한다. IAVI는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임상 개발, 미국 FDA 등 규제기관 대응 및 대유행 대비 전략을 주도한다. 힐레만 연구소는 차세대 제조 공정을 적용한 초기 임상용 백신 생산과 기술 이전을 담당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의 공정 확장(Scale-up)과 대량 생산을 주도한다. 특히 자회사인 독일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기업 IDT 바이오로지카(이하 ID

T)의 제조 역량을 결합해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IDT는 백신 제조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총정 및 완제 공정을 맡아 무균 충전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수행한다.

참여 기관들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평가(PQ)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자이르 에볼라(Zaire ebolavirus) 백신과 동일한 재조합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rVSV)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감염병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과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 참여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IDT의 연계 역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성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제약바이오協, 빅파마·투자자 직접 연결

‘이스트-웨스트 바이오파마 서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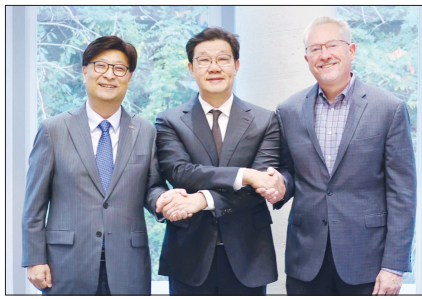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 및 대형 벤처캐피탈과 직접 기술이전과 투자 유치를 협력하는 글로벌 딜메이킹 무대가 2년 연속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내 유망 바이오핵들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진두지휘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027년 3월 15~17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제6회 ‘이스트-웨스트 바이오파마 서밋(East-West Biopharma Summit)’의 지역 주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29일 키

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주최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스트-웨스트 바이오파마 서밋은 바이오 투자 행사로, 아시아(이스트) 유망 제약바이오 기업과 미국·유럽 등 서구(웨스트) 글로벌 제약사, 투자자를 직접 연결한다. 특히 본 행사가 2026년에 이어 2027년까지 2년 연속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K제약·바이오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을 증명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최위원회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생태계를 대표하



29일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고상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왼쪽부터),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바이오센추리의 조쉬 벌린 기업 제휴 및 사업 개발 총괄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는 기업 및 기관 14곳이 대거 합류했다. 주요 산업 현안으로는 아시아 혁신 신약개발 및 기술이전 전략, 유망 파이프라인 투자 등을 다룬다.

/이청하 기자

“미세침 형태로 히알루론산 흡수 더 깊게”

한국콜마 ‘히알루론산 파우더’ 개발

K뷰티 업계가 화장품 유효성분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스피쿨(미세침)’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스피쿨 화장품의 피부 자극과 세안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콜마는 피부에 바르면 따가움 없이 스며드는 신개념 가루 제형을 국내 최초로 구현해 K뷰티 약물전달기술(DDS)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한국콜마는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스피쿨 형태의 미세 가루로 만든 ‘히알루론산 파우더’ 제형 개발에 성공하고 관련 기술 특허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히알루론산이 파우더 형태의 뽀족한 결정을 갖췄다는 처음이다.

기존 스피쿨은 바닷속 해면동물에서 추출한 천연 미세 침이다. 피부 표면에 미세한 자극을 주면서 유효성분의 흡수를 돕

는 가능한 약물에 공급되어 소비자가 약사 상담 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K웰니스는 국내를 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 소비마저 K뷰티에서 K웰니스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국내 인바운드 관광 플랫폼 크리에이트랩이 발표한 2026년 1~9월 예약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이용객 7명 중 1명(약 15%)은 최근 2년간 2회 이상 한국을 다시 찾은 재방문객으로 집계된 가운데, 재방문 시 쇼핑 상품은 다변화하고 있다. 영어권 관광객은 두파케어 등 ‘헤어’ 카테고리 재예약률(10%)이 가장 높았고, 홍콩 관광객은 K푸드를 중심으로 한 미식(14%)에 이어 헤어, 피부과, K뷰티 등을 주로 다시 찾았다.

크리에이트랩 관계자는 “K팝에서 시작한 한국인 라이프스타일 열풍은 K뷰티 흥행을 이끈 바 있고 현재는 헤어, 피부과 등 헬스케어영역에서 방한 외국인이 ‘단골 여행지’로 등장해 웰니스는 핵심 관광 요소가 될 것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패션그룹형지, 전국에 겨울상품 공급 확대

800여개 로드숍에 F/W 상품 배치

패션그룹형지가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한 의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대리점에 겨울 신상품 물량을 집중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물량 부족을 방지하고 대리점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 대상은 크로커다일레이디, 샤프트, 올리비아하슬러 등 패션그룹형지의 여성복 브랜드를 운영하는 전국 800여 개 로드숍이다.

패션그룹형지는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진 기상 변화에 맞춰 경량 다운부터 헤비 다운, 방풍 아우터, 울 코트 등 F/W 주요 상품을 매장에 집중 배치했다. 특히 방한 의류를 찾는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



패션그룹형지 크로커다일레이디 매장에 진열된 2026년 겨울 신상품 아우터 라인업.

/패션그룹형지

록 매장 입고 주기를 앞당겼다.

이를 통해 전국 대리점의 주요 상품 재고 부족으로 인한 판매 기회 손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 및 대리점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대체불가 K-에너지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2026년 11월 10일(화) 오후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주 제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일 시 2026년 11월 10일(화) 14:00~16:3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주 최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메트로경제)
후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록 참가비 무료
문 의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연사 소개



이종민
- 한전기술지주 대표
- 전 SK텔레콤 부사장



이태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곽은섭
-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



이상준
- 국립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제훈
-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책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막식	14:00~14:20	〈축사〉 안호영 국회의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40	이종민 한전기술지주 대표
강연	14:40~15:00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
	15:00~15:20	곽은섭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
	15:20~15:40	이상준 국립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15:40~16:00	이제훈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책임
질의응답	16:00~16:30	연론 질의응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LG전자, 글로벌 장애 청소년 81명과 AI·IT 역량 겨룬다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5년간 41개국 5000명 청소년 참가

LG전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검색부터 영상 제작, 프로그래밍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장애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베트남 다낭에서 9개국 장애 청소년 81명이 참가하는 ‘2026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ITC)’ 본선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LG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LG전자와 한국장애인자활협회, 베트남 현지 사회적기업 및 대학 등이 공동 주관했다.

GITC는 장애 청소년의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을 높이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된 국제 대회다. 지난 15년간 41개국에서 약 5000명의 장



LG전자 주관으로 지난 27일 개막한 2026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ITC) 본선 대회에서 필리핀 장애 청소년들이 AI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종목에 참가하고 있다.

/LG전자

에 청소년이 참가했다. 올해 본선에는 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9개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81명이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AI를 활용한 정보 검색 및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e-Combination’ ▲AI 플랫폼 기반 영상 제작 종목인 ‘e-Content’ ▲자율주행차 프로그램 레밍 역량을 겨루는 ‘e-Creative’ ▲AI

를 활용해 동작과 음성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게임을 제작하는 ‘e-Interactive’ 등 4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베트남 전통춤 체험과 박물관 방문 등 현지 문화를 경험하며 참가자 간 교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대회 개최 15주년을 맞아 초대 우승자도 현장을 찾았다. 2011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첫 대회에서 정보검색 부문 1위를 차지한 신기훈 씨는 올해 개회식에 참석해 후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신 씨는 현재 부산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스마트기기에 AI를 구현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GITC를 통해 글로벌 장애 청소년들이 AI 등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제35회 함태호 학술상 시상식 개최

재단법인 오투기함태호재단이 지난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식품영양과학회와 공동으로 제35회 오투기함태호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투기함태호재단 박기문 이사(왼쪽)와 한국대학교 오투기함태호 학술상 수상자인 이영승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투기



한국타이어, 품질만족지수 2관왕

한국타이어가 자동차용 타이어와 전기차 전용 타이어 분야에서 나란히 품질만족도 1위에 올랐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6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조사에서 자동차용 타이어 부문 18년 연속, 전기차 전용 타이어 부문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타이어



‘2026년 GS칼텍스 참사람상’ 수상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GS칼텍스

GS칼텍스재단, 선행 실천 주역 발굴

참사람상 시상식 개최

의인 8명, 선행 3명·1개 단체 선정

GS칼텍스재단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을 구한 의인부터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해 온 이웃까지 우리 사회의 숨은 주역들을 찾아 격려했다.

GS칼텍스재단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GSE타워에서 ‘2026년 GS칼텍스 참사

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GS칼텍스 참사람상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거나 이웃을 위해 선행을 실천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됐다.

올해 수상자는 의인 부문 8명, 선행 부문 3명과 1개 단체로, 재단은 이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원관희 기자 wkh@

아모레퍼시픽,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 영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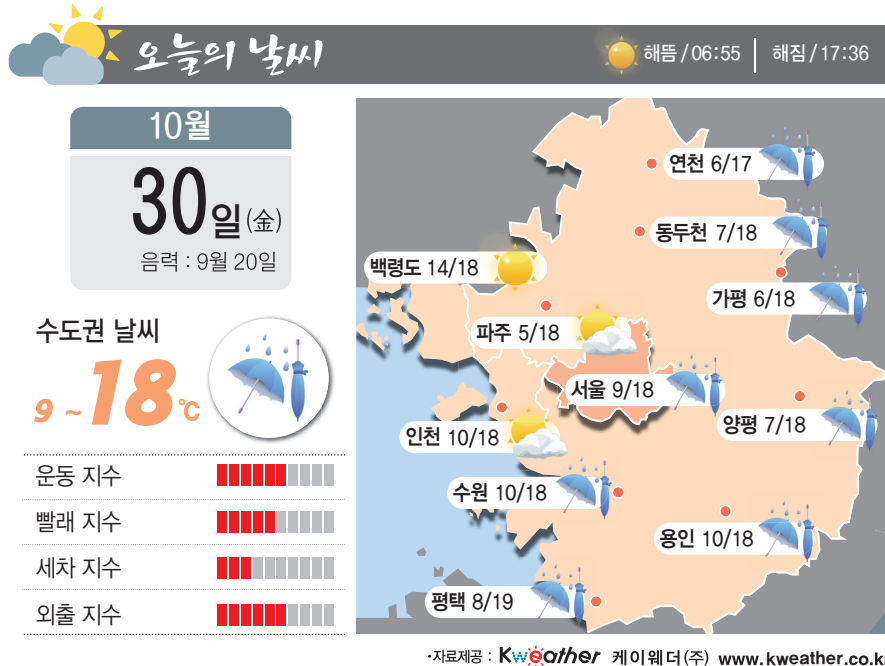
지식재산 경영 성과 인정

아모레퍼시픽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연계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최고 표창을 받았다. 연구개발(R&D)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위조상품 유통 차단,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 활성화 등을 통해 K뷰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8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열린 ‘KINPA 컨퍼런스 2026’ 내 ‘2026 기업지식재산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고 표창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메타빌드 ‘메심 AX’, 우수조달물품 지정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포함

메타빌드는 AI연계통합플랫폼 ‘메심(MESIM) AX’가 조달청 ‘2026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메심 AX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해졌고,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도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이나 나라장터 종합쇼핑

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메심 AX는 기존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AI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연계통합 솔루션이다. 메타빌드가 쌓아온 연계·통합 기술에 생성형 AI와 MCP 게이트웨이 기술을 결합했다. 연계서비스 개발부터 운영·관리까지 지원한다.

메타빌드는 행정·복지·교육·의료·재난 안전·국방·농업·교통·금융·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4000여 기관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메심 AX는 굿소프트웨어(GS) 인증 1등급과 관련 특허를 확보했다.

/김보민 기자 kbm@

인사 ◆현대백화점그룹 승진 ◇현대지에프홀딩스 △부회장 장호진(대표이사) △사장 윤영식 ◇현대백화점 △부사장 김봉진(상품본부장) △전무 김필범(아울렛·커넥트사업부장) △상무 이용욱(안전보건담당) △상무 정중용(MD전략담당) △상무 예병우(킨텍스점장) △상무 박재성(중동점장) △이성환(자주MD사업부장) △정영환(재무담당) ◇현대홈쇼핑 △사장 한광영(대표이사) △상무 박경욱(패션사업부장) ◇현대그린푸드 △부회장 박홍진(대표이사) △사장 이현상(영업총괄 겸 상품본부장, 겸 유통외식본부장) △전무 안병혁(전략기획실장 겸 그리팅사업본부장) △상무 우명학(파인다이닝사업부장) △상무 정서영(캐주얼다이닝사업부장) ◇현대리바트 △전무 나길용(법인사업총괄 겸 자재사업부장) ◇한섬 △부사장 유태영(대표이사 내정) △전무 이형돈(해외패션본부장 겸 해외패션전략담당) △전무 김종규(영업본부장) ◇현대디에프 △부사장 박장서(대표이사) △전무 욱우석(MD전략본부장) △상무 임세준(영업본부장) ◇현대디지털 △상무 배성(지원사업부장) ◇현대퓨처넷 △상무 김형구(영업사업본부장) △상무 조호재(경영지원담당) 전보 ◇현대백화점 △신규점프로젝트추진본부장 부사장 김창섭 △미래성장추진실장 전무 류영민 △영업전략실장 전무 최원형 △목동점장 상무 양명성 △더현대내사업부장 상무 김정희 △본점점장 상무 박상준 △판교점장 상무 김강진 △영업전략담당 상무 박근호 △더현대대구점장 상무 김은성 △

천호점장 상무 이동영 △해외역서리사업부장 상무 신재윤 ◇현대홈쇼핑 △채널전략 디비전장 겸 영업전략담당 상무 임현태 △경영지원디비전장 겸 미래성장추진담당 상무 이 경우 ◇현대그린푸드 △식품구매사업부장 상무 신현구 △유통사업부장 상무 김현준 ◇현대캐터링시스템 대표이사 상무 우기성 ◇한섬 △국내패션본부장 상무 김은정 ◇현대L&C △창호사업부장 겸 전략 상품사업부장 상무 이동섭 △장식자재사업부장 상무 성재용 ◇현대바이오랜드 △경영전략담당 상무 이정민 △식품사업부장 상무 오영근 ◇현대디지털 △상품사업부장 상무 박영빈 ◇현대지에프홀딩스 △경영개선팀장 상무 김택년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국립과학사 연구원 법의학부장 이수경

부음 ▲박해진씨 별세, 김기인(안랩 부사장)씨 장인상 =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31일 오전 5시 4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 국립이천호국원. 02-857-0444

▲유춘자씨 별세, 신규식(충청투데이 충북 본사 사장)씨 장모상=29일 오전, 인천직십자병원장례식장 303호, 발인 31일 오전 7시 30분. 032-822-1234

▲김성애(81세)씨 별세, 이승우(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씨 모친상 = 분당차병원장례식장 2호실(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발인 31일, 장지 용인평온의 숲, 031-780-6170



진에어, 에어부산·에어서울과 운동회

진에어가 에어부산·에어서울과 통합을 앞두고 정비사무실 통합과 직원 교류를 통해 정비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 28일 인천 영종도 영마루공원에서 3사 정비 직원이 참여하는 ‘한가족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정비본부 임직원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진에어



기계설비協-물가協, 공사비 현실화 협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한국물가협회와 손잡고 기계설비 적정 공사비 산정 기반을 마련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물가협회와 기계설비공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오른쪽)이 김수용 한국물가협회장과 MOU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계설비건설협회



신일전자, 품질만족지수 2개 부문 석권

신일전자가 선풍기와 전기히터 분야에서 장기간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국내 생활가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신일전자는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6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에서 선풍기 부문 21년 연속, 전기히터 부문 8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오른쪽)신일전자 이창수 전무가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일전자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교과세특’ 스토리텔링 방법론



지 상 범 역
입시 토크

◆2028 대입 개편의 본질

202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안은 대한민국 대입 평가의 중심축을 정량적 수치에서 정성적 역량으로 이동시키는 거대한 전환점이다. 핵심은 고교 내신 평가 체계가 기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는 점에 있다. 기존 9등급 체제에서 최상위권의 상징이었던 1등급 비율은 상위 4%에 불과했으나,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1등급 범위가 상위 10%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 1등급 전체와 2등급의 상당수 수험생까지 모두 동일한 ‘1등급’ 표기 안에 묶이는 셈이다.

내신 1등급 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대학이 정량적 내신 등급 점수만으로 우수 인재를 선별하는 기능은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선택한 실질적인 평가의 핵심 도구가 바로 학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즉 ‘교과세특’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뿐만 아니라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에도 성취도(A~E)와 함께 5등급 상대평가가 병기된다. 단순 성적 수치만으로는 학업적 깊이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은 교과세특의 정성적 평가 요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 변화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넘어 교과전형 및 정시 수능위주전형으로까지 정성 평가 반영이 확대되는 기류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10%라는 넓은 1등급 울타리 안에서 수험생 개개인의 진짜 학업 역량을 증명하는 핵심 변수는 과목별 교과세특에 담긴 스토리텔링과 탐구의 깊이이다.

◆세특의 성패를 결정짓는 3단계 공식

교과세특의 핵심은 무분별한 스펙 나열이 아닌, 교과 수업 과정에서 발현된 진정성 있는 학업적 궤적이다. 이때 수험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 프레임워크가 바로 ‘동기-과정-성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스토리텔링 구조다.

첫째, 탐구 동기(Motivation)는 반드시 교과 수업 내부에서 출발해야 한다. 수업 시간 교사의 설명, 교과서 개념, 혹은 단원 간 연계 과정에서 뜯겨 났던 자발적 지적 호기심이 서술의 시작이어야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탐구 과정은 세특 서술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구간이다. 단순 인터넷 검색을 넘어 문헌 비교 분석, 통계 데이터 재해석, 변수를 달리한 실험 및 시뮬레이션 구축, 학술 논문 탐독 등 고차원적 탐구 행위가 구체적인 동사와 함께 기술되어야 한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직면한 학업적 한계를 극복한 방법론이 드러날 때 역량이 명확히 입증된다.

셋째, 성장 및 변화(Growth)는 탐구를 통한 지적 지평의 확장이다. 이는 주관적 감상 아닌, 탐구를 통해 얻은 비판적 시각이나

후속 탐구 과제, 타 교과목과의 융합 이행 계획으로 서술된다. 하나의 탐구가 또 다른 질문을 낳고 후속 탐구로 연결될 때 수험생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확신하게 된다.

◆대입 성공을 위한 3대 세특 관리 전략

2028 대입 개편 체제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세특 준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첫째, ‘수행평가 요약지(탐구 로그북)’의 상시화 : 수업 중 생긴 질문, 참고 문헌, 데이터 분석 과정의 시행착오와 학업적 성찰을 매 수업 직후 일상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세특의 밀도를 결정한다.

둘째, ‘단 하나’의 깊이 있는 탐구에 집중 : 수많은 활동을 곁들기로 나열한 세특은 지적 깊이를 전달하지 못한다. 단 하나의 주제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거친 논리적 단계와 지적 성장을 밀도 있게 담아내는 것이 훨씬 강력한 변별력을 갖는다.

셋째, 과목 선택 로드맵과의 연계성 확보 : 고교학점제하에서 본인이 선택해 이수한 과목들의 세특이 하나의 커다란 학업적 서사로 매끄럽게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

10%로 확대된 1등급 울타리 안에서 자신만의 명확한 학업적 빛깔을 드러내는 유일한 열쇠는 수업 기반의 ‘동기-과정-성장’ 스토리텔링이다. 진정성 있는 탐구로 완성된 교과세특은 합격을 이끄는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JNB진로전략연구소장

반등과 회복 사이



기지 수첩

김 아 영
(자본시장부)

‘6천피 복귀’. 코스피가 6.63% 오른 6012.44에 마감한 28일 시장에 쏟아진 말이다. 7월 31일 이후 최대 상승폭이고 이를 연속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했다. 하루 만에 7.57% 빠지며 5554.22까지 밀렸던 15일로부터 2주가 채 지나지 않았다. 다만 그 2주 사이 돌아온 것이 지수뿐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같은 2주를 지수가 아니라 계좌로 들여다 보면 장면이 달라진다. 이달 8~9일 하루 60억 원대였던 반대매매 금액은 12일 271억원, 13일 593억원으로 불어났다. 14일과 15일에는 각각 893억원, 805억원으로 이를 연속 800억

원을 넘었고, 14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7.2%까지 치솟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2일 34조2887억원에서 27일 29조6372억원으로 4조7000억원가량 줄었다. 자발적 상황도 섞여 있지만 감소는 반대매매가 몰린 시기와 겹친다. 증시 대기자 금인 투자자예탁금은 27일 90조1030억원으로 일주일 만에 90조원대를 되찾았지만 역대 최대였던 6월 4일 139조6947억원과 비교하면 50조원 가까이 모자란다.

반등과 회복은 흔히 같은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반등은 지수의 일이고 회복은 사람의 일이다. 반등은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회복은 그 바닥 근처에서 무너졌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비로소 이뤄진다.

15일 전후 강제로 정리된 주식은 28일 반

등에 참여하지 못했다. 반대매매는 팔 시점을 고를 수 없게 만들고 대개 가장 낮은 가격 근처에서 손실을 확정시킨다. 같은 종목을 같은 값에 샀더라도 버틸 수 있었던 계좌와 그렇지 못한 계좌는 2주 만에 전혀 다른 숫자를 갖게 됐다. 28일 외국인과 기관은 1조7766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8016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는 28일 6000선을 되찾았고 시세판 위에서 이달 중순의 급락은 벌써 지나간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급락 한가운데서 계좌를 정리당한 투자자 상당수는 지금 이 반등의 자리에 없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지수가 어디까지 오르느냐보다 그 사이 떠난 돈과 사람이 얼마나 돌아오느냐다. 이번 주 코스피는 반등했지만, 회복은 이제부터의 일이다.

/aykim@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30일 (음 9월 20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60년생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됩니다. 72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84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49년생 하늘이 대복을 내려주니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61년생 도모하는 일은 빨리 시행하세요. 73년생 어린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듭니다. 85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마세요.



50년생 남에게 베풀고 보은하세요. 62년생 회사에서 업무중에는 조금씩 양보하세요. 74년생 결실을 얻게 됩니다. 86년생 범에게 물려갔으나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어나오는 격입니다.



51년생 한가지에 매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63년생 계약은 혼자 진행하세요. 75년생 두 가지 소원은 이루기 어렵겠습니다. 87년생 연인과 다투거나 이별 수 있겠습니다.



52년생 해외 여행이 꿈인데 몸이 따라 주지 않습니다. 64년생 남쪽에 있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76년생 생활에 고통 받습니다. 88년생 오랜 친구가 나를 떠나게 되니 마음이 쓸쓸하겠습니다.



53년생 가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65년생 어려움에 슬기롭게 도전합니다. 77년생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89년생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54년생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66년생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78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세요. 90년생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곧 호전됩니다.



55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습니다. 67년생 좀더 처신을 드림이 좋겠습니다. 79년생 변함 없이 노력한다면 우연한 기회에 좋은 운을 만날 것입니다. 91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56년생 욕심을 자제하고 그간의 일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8년생 자존심을 버리고 남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80년생 성공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92년생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57년생 너무 서두르는 것도 길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기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81년생 일의 성과가 태양처럼 빛납니다. 93년생 다 된 일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58년생 도움을 받아 좋은 거래가 성사됩니다. 70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2년생 마음에 두던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94년생 때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59년생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따릅니다. 71년생 원대한 것을 이루겠습니다. 83년생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95년생 주변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조심하세요.



김상회의四季

가족의 발견

언젠가 엄마와 딸이 딸자의 월광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그 표정은 엄마의 사주를 짚어보고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엄마가 지나온 세월 동안 마주쳐야 했던 비바람과 시련의 순간들이 사주의 흐름과 아우러져 그대로 드러났다. 엄마는 사주를 풀아가는 중간중간에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덧붙였다. 옆에서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듣기 시작한 딸의 표정은 갈수록 달라졌다. 엄마가 어둠 속을 지나가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슬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대목에서는 눈물을 보였다. 함께 기억하고 있는 즐거웠던 순간의 이야기에서는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다. 상담을 마치면서 딸은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재미로 시작한 상담에서 엄마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된 것이다. 한번은 청년 둘이 아버지 사주를 보고 싶다며 찾아왔었다.

냉정하고 엄격하기만 한 아버지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사주를 풀어보니 아버지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그리고 중년에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대로 보였다.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은 성실함이었다. 절대 남에게 기대지 않으려 했고 가족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달려온 사람이었다. 아들들에게 엄격했던 건 강한 책임감의 영향이었다. 본인처럼 어렵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에 질책을 마다하지 않았다. 아버지 사주와 운세의 흐름을 본 아들들은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게 됐다. 명리학은 이렇게 가족을 사랑으로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너무 가깝기에 오해가 많고 애증도 많은 게 가족이다. 쌓인 감정은 자칫하면 가족의 불화를 불러온다. 그런 때 서로의 사주를 보면서 인생을 반추해보면 가족을 이해하는 사랑의 발판이 된다. 명리학이 선물하는 감동의 순간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4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2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퍼즐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6	8	9	5	8	2	1
2	9	1	8	7	2	1	6
2	9	1	8	6	2	7	8
1	8	9	2	8	9	6	7
6	2	2	1	9	7	5	8
8	7	9	2	8	6	9	1
9	1	2	6	2	8	8	9
9	8	7	8	1	9	2	6
8	2	6	9	7	2	1	9

7	9	2	6	2	8	1	8
8	1	8	2	9	7	6	2
6	9	2	8	1	7	8	9
2	6	7	8	9	1	2	9
1	8	9	7	2	9	6	2
2	8	9	2	6	8	9	1
9	2	8	1	7	6	9	8
8	7	6	9	8	2	9	1
9	2	1	9	8	2	8	7

스택스 립, ‘파리의 심판’을 넘어… “Futuro Antico”

〈오래된 미래〉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46

“푸투로 안티코(Futuro Antico).”

이탈리아어로 ‘오래된 미래’라는 뜻이다. 1976년, 50년 전 와인업계 대이변이었던 ‘파리의 심판’을 통해 이전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볼 때가 됐다. 명성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다.

나파밸리의 미래를 말하며 이탈리아어가 튀어나온 것도, 첫 이미지로 포도밭을 돌아다니는 UV 로봇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티노리에서 스택스 립을 비롯해 미국 와이너리를 총괄하고 있는 후안 무뇨스오카(Juan Munoz-Oca·사진)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파리의 심판 50년 이 지난 지금은 변화와 정체성 사이의 균형감에 대해 “이탈리아어로 ‘푸투로 안티코(오래된 미래)’라는 말처럼 대부분의 변화는 혁신적인 무엇보다은 근본적인 것, 즉 포도 재배”라며 “올해를 기점으로 스택스 립의 모든 와인은 보우 포도밭의 와인으로만 양조한다”고 강조했다.



안티노리에서 스택스 립을 비롯해 미국 와이너리를 총괄하고 있는 후안 무뇨스오카(Juan Munoz-Oca·사진)가 스택스 립의 양조 철학과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안티노리는 결국 농사짓는 가문”이라며 “모든 원칙은 좋은 포도를 길러야 아름다운 와인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1970년에 설립된 스택스 립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것은 1976년 ‘파리의 심판’에서 우승을 하면서다. 설립 후 6년 만인 인생 와이너리가 3년 차에 만든 ‘S.L.V. 카베르네 소비뇽’ 1973 빈티지가 보르도 특급 와인인 ‘샤토 무통 로칠드’와 ‘샤토 오브리옹’을 모두 제쳤다. 당시 우승했던 S.L.V. 카베르네 소비뇽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영구 소장품이자 ‘미국을 만든



(왼쪽부터)스택스 립 아베타 소비뇽 블랑 2024, 스택스 립 카리아 샤르도네 2024, 스택스 립 아르테미스 카베르네 소비뇽 2021, 스택스 립 페이 카베르네 소비뇽 2020, 스택스 립 S.L.V. 카베르네 소비뇽 2023.

/안상미 기자

101가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 그린 스택스 립이 지난 2023년 이탈리아 와인 명가인 안티노리에 인수됐다.

안티노리는 이후 3년에 걸쳐 다른 재배자로부터 포도를 사들이는 것을 단계적으로 끊었다. 기존에 안티노리가 나파밸리에 가지고 있던 포도밭을 활용한 것은 물론 스택스 립 와인을 위해 추가 매입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후안은 “와이너리를 경영하는데 있어 1년이나 10년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바라본다”며 “30년 쓰고 갈아엎는 밭이 아니라 매입하면서도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포도

밭을 기준으로 한다”고 전했다.

오래된 한옥을 고수해서 대들보와 마당같은 집의 결은 그대로 두더라도 난방과 단열은 최신으로 바꾸는 것처럼 최신 기술은 계속해서 적용 중이다. 올해부터 스택스 립의 포도밭에는 밤마다 U자 모양 로봇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말이다. 수 세기 동안 황을 뿌려 막아 온 곰팡이를 이제는 캐노피 속으로 비추는 자외선이 잡는다.

박물관의 역사적 레드 와인을 뒤로 미루고 화이트 와인을 먼저 주인공으로 모셔본다.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변화의 시

작도 화이트 와인에도 먼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다.

그는 “클래식 나파밸리의 스타일로 화이트와 레드를 불문하고 자연 산도를 살려 더 싼뜻하고, 우아하게 양조한다”고 설명했다.

‘스택스 립 아베타 소비뇽 블랑 2024’은 나파밸리의 열대과일보다는 라임과 레몬 분위기다. 생동감 있는 산도와 함께 서늘했던 2024년의 기후를 반영해 알코올은 12도 안팎에 불과하다.

‘스택스 립 카리아 샤르도네 2024’은 양조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최소 80%는 젖산발효를 하던 공식을 2023년부터 내려놓았다. 와인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에 맡겼다. 그렇게 2024년은 절반 정도만 젖산발효를 거쳤다. 오크는 절제됐고, 산미와 질감은 살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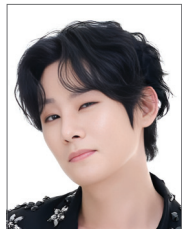
그래도 파리의 심판 50주년 빈티지인 ‘스택스 립 S.L.V. 카베르네 소비뇽 2023’을 빼놓을 순 없다. 그건 후안의 언급을 그대로 빌려 “S.L.V.를 마시는 건 역사를 마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2023년은 지금까지 ‘세기의 빈티지’라 불린 2021년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처음엔 입을 다물고 있지만 다크 초콜릿과 커피, 단단한 탄닌으로 천천히 열리며 보이는 잠재력은 ‘벨벳장갑속강철주먹’이란 별명답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10월 노래교실 애창곡 1위 ‘눈뜨고 있는 한’

노래교실 강사들 투표 선정



가수 강문경(사진)의 ‘눈뜨고 있는 한’이 ‘노래교실 애창곡 50선’ 1위에 올랐다.

강문경은 어린 시절부터 판소리를 배웠으며, 고등학생 때는 판소리 ‘수궁가’ 완창 발표회를 열었다. 2003년 전국 판소리 전통고수대회 학생부 대상, 2004년 박동진 전국 판소리 고법 대회 일반부 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 2014년 ‘아버지의 강’으로 데뷔했다.

가수 서주경 DD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약 7년간 트레이닝을 받았으며, 국악을 바탕으로 한 발성을 대중음악에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계기는 2020년 SBS ‘트롯신이 떴다2-라스트 찬스’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으며, 2024년 MBN ‘현역가왕2’에서는 최종 7위에 올라 2025 한일가왕전에 출전할 국가대표 TOP7에 포함됐다.

이번에 1위를 차지한 ‘눈뜨고 있는 한’은 노래교실 강사들의 투표로 선정됐다. 강문경은 “노래교실 강사들이 직접 뽑아 준 상이라 더욱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대중 곁에서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10월 노래교실 애창곡〉

순위	곡명	가수
1	눈뜨고 있는 한	강문경
2	역마차 싸움	윤수현
3	나는 반딧불	황가람
4	십년만	양지은
5	나비아	전유진
6	옛날 애인	전부성
7	다시는	나훈아
8	아이 좋아	린
9	딱 한번의 실수	임현정
10	바람의 소원	채희
11	이정표	장윤정
12	고향에서 왔어요	김현
13	하늘에	장윤정
14	나 이라는 동안	조항조
15	순정	강문경
16	빈 술잔	정의송
17	안양역 첫차	박혜신
18	가시 여인아	태진아
19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솔지
20	인간시장	진성
21	목포행 완행열차	장윤정
22	금수저	김용빈
23	고맙소	조항조
24	인생열차	나태주
25	찢이야	영탁

/한국가요강사협회

순위	곡명	가수
26	참회	최진희
27	내가 왔어요	우설민
28	연정	배금성
29	미운 사랑	진미령
30	연모	박우철
31	천년지기	유진표
32	니나노	윤수현
33	돌아보지 마세요	임영웅
34	안오네	주현미
35	내가 이러려고	최영철
36	님바라기	윤천금
37	사랑의 흔적	최시라
38	사랑이 비를 맞아요	배금성
39	못된 사랑	조항조
40	평행선	문희옥
41	6학년 6반	유진표
42	인생의 답	김연자
43	왕대표	정정아
44	무정세월	이박사
45	인생이란	윤시내
46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김연숙
47	폭 빠졌나봐	현숙
48	이런 날 기다렸나요	김희재
49	간월도	소명
50	역대급 여자	김영임

신작 영화·명작 재개봉작 등 구성

롯데시네마가 11월 단독 개봉 콘텐츠인 ‘롯데시픽’ 라인업을 공개했다. 신작 영화와 명작 재개봉작을 비롯해 세로형 스포츠 영화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장편영화까지 선보이며 극장 콘텐츠를 다 변화한다.

먼저 4일에는 바다 호러 영화 ‘변이’와 애니메이션 ‘극장판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발푸르그스의 회전’이 개봉한다. ‘변이’는 과로와 번아웃을 기괴한 신체 변화와 결합한 작품으로, 제56회 시체스 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했다. 같은 날 개봉하는 ‘발푸르그스의 회전’은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시리즈의 네 번째 극장판으로, 기존 세계관을 잇는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인다.

11일에는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가 개봉 20주년을 맞아 재개봉한다. 커스틴 던스트가 주연을 맡은 이 작품은 프랑스 궁정을 배경으로 화려한 의상과 현대적인 음악을 결합한 연출이 특징이다.

18일에는 세로형 스포츠 사극 ‘광안: 세자의 여자’와 애니메이션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가 관객을 만난다. 성준과 추, 문지훈(스윙스)이 출연하는 ‘광안: 세자의 여자’는 세자와 공녀를 중심으로 한 궁중 로맨스다. 롯데시네마의 두번째 세



11월 단독 개봉 콘텐츠 롯데시픽 라인업.

/롯데컬처웍스

로형 영화로, 세로 화면에 맞춘 구도를 통해 인물의 표정과 감정을 강조했다.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는 두 주인공의 청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으로, 기존 작품을 다시 극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포 영화 ‘아더 미미’도 단독 개봉한다. 어린 소녀 벨라가 집에서 엄마와 닮은 정체불명의 존재를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제94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자인 제시카 찰스테인이 주연을 맡았다.

25일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제작 전반에 활용한 장편영화 ‘리파델’이 개봉한다. 근미래를 배경으로 전쟁용 안드로이드가 신앙과 인간성, 구원의 의미를 마주하는 과정을 그린 SF 액션 작품이다. 영상과 배경, 대사 등 제작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 美 ‘핵 양보 안 하면 공습’ 최후통첩… 이란 “재해제가 먼저”
▲ 美, 이란 일주일간 대규모 공습 검토… 카타르 막판 중재

▲ 美 전 CIA “기술경쟁 위해 美 기업 경제 스파이 금지 해제해야”
▲ ‘부재자 개표’ 남은 이스라엘 총선… 네타냐후 과반 확보 실패



▲ 라오민 중 재정부부장, IMF 부총재로 지명… 12월 취임 예정
▲ 日 방위성 “北 발사체 탄도미사일 추정”… “피해 없어”



신세계
롯데 센터점
인수
L1



Life

건기식부터
사우나 체험까지
일상케어 경쟁
L2



푸른 자연에 현대적 감각 더해... 걷는 즐거움 가득한 정원

아파트의 미학(美學)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의정부 신곡동 재개발로 조성된 단지
주변 녹지시설, 교통·생활 인프라 풍부

깔끔하고 단정한 조경에 예술감각 더해
녹지 사이 다채로운 조형물·쉼터 배치

중앙 수경시설 벽 따라 산책길 마련해
단차, 곡선 배치로 다채로운 풍경 연출
놀이터, 비오톱 등 자연친화적 공간도

수경시설 위에서 내려다본 쉼터. 기울어진 차양과 세로 살
구조물 아래에 주황색·초록색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했다.
/성채리 기자



경기 의정부는 탄탄한 생활 기반 위에 재개발로 새 주거지를 더해가고 있다. 의정부역 동쪽 신곡동에 들어서면 원도심 풍경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도로를 따라 상가가 늘어서 있고, 그 뒤로 학교와 주택가가 자리한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를 바로 앞에 둔 신곡 단지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는 지난달 입주를 시작했다.

단지는 신곡동 435-3 일대 잠암생활권3구역을 재개발해 조성됐다. 시공은 DL건설이 맡았다. 지하3층~지상 최고35층, 6개 동, 총 815가구 규모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1단지 641가구와 2단지 174가구로 나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2~84㎡ 407가구다.

입지 강점은 가까운 학교와 생활시설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의정부초등학교가 있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과 롯데마트 잠암점 등 대형 쇼핑시설도 주변에 있다.

주변 녹지 공간도 다양하다. 추동근린공원과 발곡근린공원, 중랑천 수변공원 등이 있어 산책과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의정부정보도서관과 의정부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 의정부유지대학교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의료시설도 이용하기 좋다.

단지에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거리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통해 역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GTX-C가 개통되면 의정부역을 통한 강남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차량으로는 동부간선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곡동 일대에서는 잠암2구역과 잠암5구역 등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원도심 생활권에 새 아파트가 더해지면서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장, 북카페 등이 있다.

단지 조경은 깔끔하고 단정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이 돋보인다. 녹지 사이에 조형물과 쉼터를 배치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작은 볼거리를 만날 수 있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 입구 주변 잔디밭에서 이형욱 작가의 ‘시퀀스(Sequence)’가 입주주민을 반긴다. 파란색과 흰색, 금빛을 조합한 조형물들이 간격을 두고 놓여 있다. 둥근 공과 고리, 길쭉한 기둥, U자 형태를 서로 다르게 쌓거나 연결한 모습이다. 같은 색과 무늬가 반복되지만 모양은 조금씩 다르다. 길을 따라 놓인 작품들을 비교하며 걷는 재미가 있다.

단지 중심에는 수경시설이 조성돼 있다. 둥근 벽 아래 연못으로 둘러싸인 구조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크고 작은 자연석과 둥근 자갈을 놓고, 물가에 식물을 심었다.

주변 화단은 서로 다른 색으로 가을 분위기를 드러낸다. 붉은색과 짙은 갈색의 식물들이 섞여 있고, 가느다란 풀들이 그 사이를 채운다. 그 위로는 배롱나무와 팽나무, 소나무 등 키 큰 나무들이 가지를 펼친 형태다. 수경시설 옆 산책길도 완만하게 굽어진다.

석재 벽 위쪽으로 올라가면 나무편을 간 데크에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다. 데크 가장자리에는 얇은 수로를 등글게 조성했다. 가까이에서 물과 나무를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리다.

높이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바뀐다. 수경시설

위쪽에서는 물가의 돌과 화단, 산책길이 키 큰 나무와 함께 어우러져 보인다. 내려가는 계단도 둥근 모양으로 꾸며 곡선 디자인이 반복된다.

아래쪽에는 차양을 갖춘 쉼터가 따로 있다. 가느다란 기둥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차양을 받치고, 한쪽 면에는 세로 살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웠다. 차양과 세로 살 틈으로 들어온 햇빛은 바닥에 줄무늬 그림자를 만든다.

동 출입구의 회색 포장길 양옆에는 낮은 풀을 심고, 그 사이에 줄기가 곧게 뻗은 나무를 배치했다.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야외 공간도 마련했다. 동 사이에 이동식 네트를 설치해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단지 한쪽에는 작은 생물의 서식공간인 ‘육생비오톱’을 만들었다. 여러 그루의 나무 아래 들쭉날쭉한 돌을 쌓았다. 매화나무, 산수유, 산철쭉 등 식물을 통해 계절마다 바뀌는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다. 산책길 옆 쉼터는 차양 아래 등받이 벤치를 여러 방향으로 놓아 서로 마주 앉을 수 있도록 했다.

놀이터도 공간마다 다른 모습이다. 1단지에서는 각진 면과 선명한 색상을 활용한 놀이시설이 눈길을 끈다. 놀이터 주변에는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원뿔 모양의 나무를 심어 식재에도 변화를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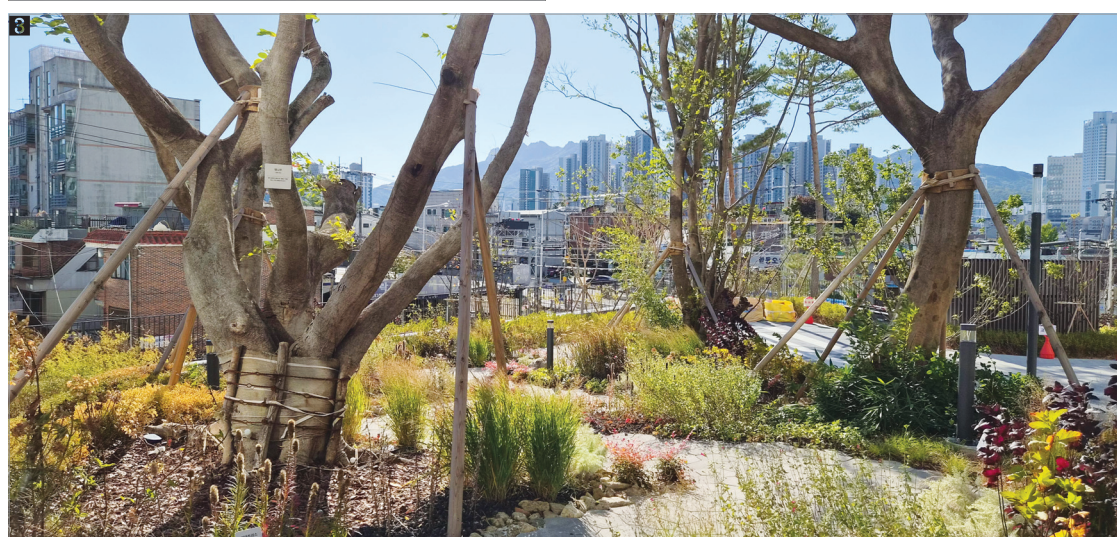
2단지 놀이터는 통나무 기둥과 초록색 시설물로 꾸며 자연친화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낸다. 나무 색과 잎을 닮은 색상이 주변 수목과 어우러진다. 한쪽에는 작은 모래놀이 공간도 보인다. 나무 데크로 가장자리를 두르고, 안에 모래를 채웠다. 아이들이 직접 모래를 만지고 쌓으며 놀 수 있는 자리다.

1단지와 2단지 사이에서는 유치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과 단지 앞 의정부초등학교에 유치원까지 더해진다면 보육·교육시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가까운 통학 거리와 일상에서 뛰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뒷받침한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1수경시설 아래로 이어진 연못. 2통나무 기둥과 초록색 시설물로 꾸민 자연친화놀이터. 3쉼터에서 내려다본 정원.

메트로 한줄뉴스



▲11월 A매치 명단 발표... ‘은퇴 소동’ 96라인·손흥민 모두 선발
▲남자 U-19 축구대표팀, 중국 판다컵·일본 SB S컵 연속 출전 /사진 뉴시스

▲신상훈·정찬민·장유빈, KPGA 렉서스 마스터즈서 대상 경쟁
▲신해철·유재석·블랙핑크 문화훈장...유해진·장항준, 대통령 표창

▲AI 시대 출판업계, 위기냐 기회냐...2026 아시아 출판 주간
▲동학농민혁명 고부농민들의 결기·항쟁, AI 영화로 제작